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적용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 연구책임자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자 : 김남준(목포대학교 교수)
김향인(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류숙희(우송대학교 교수)
윤영돈(인천대학교 교수)
- ▶ 연구보조원 : 김지영(경상대학교 박사과정)
김경순(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서채원(서울교육대학교 석사과정)
안초록(서울교육대학교 석사과정)

발 간 사 ■ ■ ■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연구입니다.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로 총괄보고서 1권과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관련 4권의 하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한 정밀한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덕 및 윤리교육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도덕적 판단력은 J. Rest가 창안한 4구성요소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 중의 제1요소에 해당되며,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 개발을 분석한다.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로 구분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형 검사도구이며 DIT(Defining Issues Test)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형표준화가 된 KDIT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KDIT검사지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본 연구는 두 단계의 예비검사를 거친다. 각각의 연구대상은 다르다. 1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중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147명이며,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중학생 71명이며, 고등학생은 66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 KDIT의 전체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P지수의 신뢰도는 .61로 기존의 KDIT(2007) 보다 다소 높았다. 집단별 통계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부모 학력에 따른 비교, 종교, 친구 수,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P지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거쳐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응답자의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 성적, 언어 이해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봉사활동 참여 정도 등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KDIT는 선택형 검사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집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서술형 혹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KDIT내의 P지수이외의 다양한 판단력 관련지수들을 동시에 표기하여 다른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심층연구해야 한다.

주요어: 도덕성, 청소년도덕성, 한국청소년 도덕성 진단도구, 4구성요소모형, 도덕적 판단력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James Rest가 제시한 4 구성 요소(Four Components: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 개발
- 그 중에서 특히 도덕적 판단력 측정은 새로운 도구 개발이 아닌 KDIT를 적용한 연구가 주된 목적임.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선행 연구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 개발을 분석함.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로 구분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형 검사도구인 DIT(Defining Issues Test)를 활용하기로 결정함.
- 연구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DIT 검사지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임을 확인함.

3. 연구 대상

- 1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147명임. 이 중 남학생은 124명, 여학생은 139명임.
-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생 71명이며, 고등학생은 66명임. 이 중 남학생은 64명, 여학생은 73명임.

4. 주요 연구 결과

- 검사지 구성: DIT(2007)의 개정된 검사지를 사용함. 이 검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구현하기 위해 반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A문항과 허위성을 나타내는 M문항을 없애고 그 개수만큼 1단계 문항을 추가 하였음. 대신, 응답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
- 문항 구성은 3개의 딜레마와 각 딜레마마다 12문항으로 구성
- 개정된 DIT(2007)의 전체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P(%)점수의 신뢰도는 .61로 기존 DIT보다 다소 높음.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5점 만점이며, 총 12개 문항임.
- 채점 방식은 P점수 환산을 기준으로 하며, 4개의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계산함
- 허위반응 점검은 동일응답지수, 무응답지수, 평정-순위 일치도를 적용해 계산하여 허위 문항을 제거함.
- 1차 검사 결과, 허위문항에 해당하는 응답 20여 건이 발견되었음. 전체 응답 비율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높여 성실한 응답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집단별 통계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부모 학력에 따른 비교, 종교, 친구 수,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P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5. 정책적 제언

- 응답자의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 성적, 언어 이해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봉사활동 참여 정도 등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 도덕 감수성, 도덕 품성화 등의 여타 검사와 본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응답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2차년도에서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4가지 검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응답자의 피로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IT는 선택형 검사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집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서술형 혹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5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7
2.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9
3.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11
4.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ement)의 개념 및 하위 요소	12
5. 선행 연구 개관	14
III.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 결과	25
1.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 개요	27
1) 서술형 평가와 선택형 평가 방식의 결정	27
2) 선택형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대안으로서 DIT	27
2. DIT를 활용한 청소년용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실시	28
1) 개정된 DIT 검사 개요	28
2)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33
3) 허위 문항 점검	36
4) DIT의 신뢰도	37
5) 1차 예비검사 실시와 문제점	39
6) 2차 예비검사 결과 분석	42
IV. 논의 및 결론	53
1. 요약 및 결론	55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56
참고문헌	59
부록	69

표 목 차

〈표 II-1〉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Rest의 개념화	13
〈표 III-1〉 K-DIT 문항 구성과 도덕판단 단계	33
〈표 III-2〉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	37
〈표 III-3〉 미국판 DIT의 신뢰도	37
〈표 III-4〉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 비교	38
〈표 III-5〉 한국판 DIT P(%)점수의 문항 내적 신뢰도	38
〈표 III-6〉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 종합	39
〈표 III-7〉 1차 검사 연구 대상	40
〈표 III-8〉 2차 검사 연구 대상	43
〈표 III-9〉 학교급별 P점수 비교	44
〈표 III-10〉 전체집단(중+고)의 성차	45
〈표 III-11〉 중학생 집단의 성차	45
〈표 III-12〉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	46
〈표 III-13〉 부 학력에 따른 비교	47
〈표 III-14〉 모 학력 비교	48
〈표 III-15〉 도덕윤리 관련 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49
〈표 III-16〉 종교 유형에 따른 비교	50
〈표 III-17〉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비교	51

그 림 목 차

【그림 Ⅲ-1】 1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40
【그림 Ⅲ-2】 2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43
【그림 Ⅲ-3】 학교급별 P점수 분포	44
【그림 Ⅲ-4】 성별 P점수 분포	45
【그림 Ⅲ-5】 중학생 집단의 성별 차이	46
【그림 Ⅲ-6】 고등학생 집단의 성별차이	46
【그림 Ⅲ-7】 부 학력에 따른 자녀의 P점수 비교	47
【그림 Ⅲ-8】 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P점수 비교	48
【그림 Ⅲ-9】 도덕윤리 관련 과목 흥미도에 따른 P점수 비교	49
【그림 Ⅲ-10】 종교 유형에 따른 P점수 비교	50
【그림 Ⅲ-11】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P점수 비교	5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창의성과 인성을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아 학교별로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만으로는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불완전하며, 도덕성이 올바르게 확립된 인성적 측면에서의 성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만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발달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성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지금껏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도덕적으로 사고(판단)하고 느끼는 것도 결국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학문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윤리 연구의 기본 목표나 방향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도덕적 행동에 관련된 제반 심리학적 과정 변인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측정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변수인 도덕적 판단력, 도덕 감수성(민감성), 도덕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등을 측정하는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 교육과 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표준화된 도구를 적용하여, 국가 수준의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또는 윤리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정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타당성있는 도덕 판단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청소년 도덕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덕 판단검사도구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를 확인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1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 250여명이고,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동일지역 중·고등학생 140여명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정의: 인지 · 정서 ·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2. 4-구성요소 모형
(Four Components Model)
3.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4.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ement)
의 개념 및 하위 요소
5. 선행 연구 개관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¹⁾

도덕성은 지금까지 주로 세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인지발달론이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주목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도덕성 발달이론을 처음 주장한 L. Kohlberg(1958)는 도덕성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사고(판단)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편·불변적이고 불가역적인 순차성을 지니는 6개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나 정서, 행동 중 그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뛰어난 추론(사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련된 추론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이입이나 죄책감이 크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인 신경증만을 유발할 뿐, 높은 도덕적 이상의 경지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행동 그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컨대,

1) 본 연구는 J. Rest의 도덕성에 대한 4구성요소 중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것이지만 나머지 3개의 다른 요소들과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이론을 탐구하였으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상당 부분 중복됨을 밝힌다.: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도덕적 품성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병기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도덕적 동기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균열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도덕적 감수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한다 해서 모두 도덕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돕는 행동만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면, 소화를 돕는 위장 박테리아의 활동이나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 주는 오존층의 역할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결과만으로 도덕성을 정의한다면, 남을 해치기 위해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 그의 위장병을 고쳤을 때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Rest, 1986).

따라서 도덕성이나 도덕 교육의 연구에서 사고나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는 각 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덕적 행동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도덕적 사고나 정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 연구나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덕적 추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인지)만으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연구자들로서는 T. Lickona와 J. Rest를 들 수 있다. 통합적 인격교육론자인 Lickona(1991)는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ickona는 통합적 관점의 도덕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선(善)을 알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 인지발달론적 관점과 선을 직접 행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인격은 선(善)을 아는 것(도덕적 지식)과 선을 열망하는 것(도덕적 감정),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며, 그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판단·감정·행동의 능력을 모두 갖춘, 완전한 도덕 행위자를 길러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추병완, 1999).

한편, Kohlberg의 이론적 입장을 이어 받은 Rest(1986)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Kohlberg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 라고 정의하면서(문용린, 1988),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한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 민감성(제1 요소), 도덕 판단력(제2 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 요소), 실행 능력(도덕 품성화)(제4 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이들을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하는데 있다. 도덕적 사고나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연구는 Rest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도덕적 판단력보다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인지 측면(판단력)에서만 보지 않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인 Rest가 이러한 모형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도덕적 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세 이론인 인지발달론(인지 측면)과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행동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정서 측면)을 종합하려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첫째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둘째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한 추론, 셋째 도덕적 동기화, 넷째 도덕적 행동의 실행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제1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또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다.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먼저,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Rest(1986)는 이에 대하여, 1964년 미국 뉴욕시에서 일어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방관자 효과(bystander's effect)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Rest, 1986). 그것은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대해 면담한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기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Schwartz(1977)의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제2 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 대학 치과대학의 Bebeau(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요소는 도덕적 추론(moral judgment)이다. 제1 요소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인지)를 지칭하는 바, Kohlberg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소의 측정에는 Kohlberg가 개발한 주관식 인터뷰 검사인 MJI(Moral Judgment Interview)와 이를 객관화한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인의 도덕성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Chang(1993)의 TTMR(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과 간호사의 도덕성을 재는 Crisham(1981)의 NDT(Nursing Dilemmas Test)가 개발된 바 있다.

제3 요소는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이다. 제1 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 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 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의 측정을 통해 그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인데, 이 요소는 자아 강도(ego-strength)와 인내심, 용기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잘 하며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만일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용기를 잃고 좌절한다든가, 의지가 약하든가 하면 도덕적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 있다.

3.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지난 40~50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도덕성 발달 측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의 연구물을 번안해서 사용해 온 실정이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며, 검사 도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개된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Kohlberg의 MJI, G. Lind의 MJT, 캐나다 온타리오 연구소의 OISE, Rest의 DIT 등이 있으나 이 검사 도구들의 특징, 검사 방법, 장점과 약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실행되어 오고 있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석사논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표집이 제한적이다. 공인된 국가 기관 혹은 학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지수에 대한 기준(norm)을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학교 도덕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서술형 검사와 선택형 검사가 가지는 장점들을 결합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기존에 개발된 검사도구의 장점과 약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est의 DIT를 적용하여 그 타당도, 신뢰도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Lind의 MJT 등 다른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와의 연결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판 청소년용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4.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ement)의 개념 및 하위 요소

1)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

도덕적 판단력이란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선택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aez & Rest, 1995: 386). 보통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추론(moral judgment) 능력으로 대체되어지곤 한다. 도덕적 추론은 한마디로 ‘도덕적 이유 달기’ 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 혹은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인 것이다. 발달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판단력 혹은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도덕적 판단력의 하위 요소

도덕적 판단력의 대표적인 하위 요소로 정의(justice)를 들 수 있다. 정의란 간단히 말하면 “협동에 관한 개념 안에서 이득과 책임감의 균형화” 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추상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협동’이라는 도식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즉, 도덕성 발달의 여섯 단계는 여섯 가지의 협동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발달은 다양한 “협력 관계의 가능성,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키는 법, 협동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조건 등에 관한 이해의 진보이다.” (Lapsley, 문용린 역, 2000: 169).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회 상황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 협동과 공정성이 도덕 판단을 이끈다.” 는 점이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2)

표 II-1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Rest의 개념화

단계	공유되는 기대	이익의 조화	중심개념
1	성인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규칙은 성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복종해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아동은 생각한다.	복종: “시키는 대로 해라.”
2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교환을 통해 이익이 있어야 상호작용을 한다.	도구적 이기주의: “거래해 보자.”
3	개인은 상호호혜적인 역할 채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협동이란 친구관계를 통해 공고해진다. 서로 타인의 필요와 요구, 감정을 예측하고,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대인간 조화: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
4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가는 공적인 법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타인들도 법에 복종하고, 자신의 일과 책임에 맞춰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협동 체제를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이 체제의 안정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회질서를 위한 법과 의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의무지어지고 보호받는다.”
5	법률을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는 만들어진 것이다. 합리적 사람들은 이 절차를 수용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정 절차는 일반의 의지를 반영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이익이 정당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가 기본이다.	사회적 합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은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개인들 사이의 협동은 사회조직을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협동의 개념은 권리와 책임의 임의적인 분배를 막아준다. 사회체계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비임의적 협동: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협동을 하느냐가 바로 도덕이다.”

(Lapsley, 문용린 역, 2000: 170)

많은 연구들이 정의를 ‘협동에 관한 개념 안에서 이득과 책임감을 균형화시키는’ (balancing of benefits and responsibility within a cooperative) 핵심적인 개념으로 가정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화를 추구한다(Narvaez & Rest, 1995: 393).

Rest의 도덕적 판단력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면, 정의(justice)를 중심에 둔 도덕적 판단력을 정식화하는 관점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가령, 자비심(benevolence), 명예(honor), 의무(duty), 효(filial piety)가 정의를 대체하거나 그것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Lawrence의 연구(Discussed in Rest, 1978)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믿음 체계)이나 정치적 신념(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실성이 공정성(정의)에 대한 인식보다 우선할 수 있다(Narvaez & Rest, 1995: 393). 예컨대, 아가페는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뛰어넘는다. C. Gilligan은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여성들은 ‘다른 목소리’를 이용한다는 반론도 제기한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5).

5. 선행 연구 개관

1) Kohlberg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MJI(Moral Judgement Interview)

(1) MJI 내용 분석 및 소개

Kohlberg는 1958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인터뷰 방식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세 가지 측정 방식인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Sentence and Story Rating), 구조적 주제 채점법(Structural Issue Scoring), 그리고 표준화 주제 채점법(Standard Issue Scoring, Colby & Kohlberg)을 제시하였다.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은 Kohlberg가 1958년에 개발한 도덕 판단 인터뷰 방식의 검사로서 가설적인 도덕 딜레마를 제시하고 심층적이고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후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처벌을 두려워하는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1로 간주하고,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4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인터뷰의 형식을 사용하여 준비한 질문만 사용하지 않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Kohlberg가 10년이 넘게 수집한 도덕 판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을 설정한 점이다. 단점으로는 한 개인의 인터뷰 안에서도 단계 점수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 주제 채점법은 문장과 이야기 채점 방식에서 사용한 내용 분석틀로는 실제 내담자의 도덕적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Kohlberg가 1971년에 만든 방식이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조하는 내담자의 경우 3단계에서 강조하는 친족 간의 배려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연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4단계에서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법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 판단 검사를 개인의 응답 내용에 근거해 단계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9가지의 도덕적 주제들로 기술된 채점 요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조적 채점 방식은 초기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에 비해 보다 질서정연한 자료들을 만들어냈고 도덕 판단 단계의 계열성에 대한 내적 논리를 확립하는 확실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채점 단위가 매우 크고 채점 기준들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채점이 주관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연결된다.

표준화 주제 채점법은 구조적 주제 채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식으로 Kohlberg의 종단적 연구 사례로부터 일곱 가지 사례들을 선택하고 총 여섯 번에 걸친 검사를 통해 무작위로 선택된 사례들에 대해 변형된 구조적 주제 채점 방식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선행 구조적 주제 채점법과의 차이점으로는 실제 사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제거한 점과 세 가지 형식의 9개의 딜레마 개발과, 각 딜레마에 9~12개의 심층 질문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인츠 딜레마를 생명 존중과 법 준수라는 가치 갈등을 위한 딜레마로 설정하고 두 가지 가치들에 대한 내담자의 개념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9~12개의 심층질문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장점으로는 표준화된 채점 매뉴얼을 개발하여 훈련받은 채점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인 점과 채점 기준이 구체적인 점이다. 단점으로는 채점을 위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이 채점 방식 역시 주관식 서술형 측정이 가지는 다양한 해석의 오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김향인, 2005: 63-69).

(2) MJI 문제점 분석

도덕 판단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Kohlberg가 1958년에 시작한 이래, 도덕 판단 단계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있어서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Kohlberg의 수십 년간 업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점 체계의 개선이었다. 이러한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들 중 하나는 면담 자료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료를 모으는 Kohlberg의 방식은 J. Piaget의 방식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방식이었으며 이는 도덕 판단의 발달에 대한 구조를 보다 더 풍부하고 심도 있게 기술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적 질문을 가진 딜레마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 자료들은 신뢰성 있는 채점 체계를 구성하는데 매우 성가신 어려움들을 주었다(Rest, 1983: 580-581).

Kohlberg(1958)는 세 차례에 걸쳐 도덕 판단의 측정 방식(MJI: Moral Judgement Inventory)을 개발하였는데 이것들은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 구조적 주제 채점법, 그리고 표준화 주제 채점법이다. 이러한 Kohlberg의 도덕 판단 검사는 주관식 서술형 측정으로서 피검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하고,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상담 결과는 다시 문서로 전환되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채점자가 이러한 답변들을 사전에 준비된 채점 가이드를 활용하여 6가지 도덕 발달 단계 중 하나의 단계로 해석하였다. Kohlberg의 도덕 판단 면접법(MJI)은 주관적 면접 검사로서, 시간과 비용 및 검사자의 주관성 개입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웠다(Rest, 1974).

2) Lind의 MJT(Moral Judgement Test)

(1) MJT 내용 분석 및 소개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Uni, Konstanz) 심리학과 교수인 Lind가 개발하고, 주로 유럽 및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 도덕성 발달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도덕 판단력 검사이다. MJT는 Piaget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발전적으로 변형한 Lind의 ‘이중특성이론’ (the dual aspect theory; die Zwei Aspekte Theorie)에 토대를 두고 있다. MJT는 도덕성의 두 가지 측면, 즉 a) 도덕 판단력(인지적 측면)과 b) 도덕적 지향성 또는 가치태도(정의적 측면)를 가정한다.

Lind는 도덕적 판단력이란 “도덕적, 내적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한 Kohlberg(1964: 425)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Lind, 2010; 박균열, 2006). 여기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피험자들이 자신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논증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기록함으로써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반대 논증이 MJT에서는 주요한 관심사이며 피험자들이 극복해야 할 도덕적 과제이다. 특히 MJT의 표준 버전에서는 피험자들이 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서 각 딜레마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다룬다. MJT는 3가지 요소들(6가지 도덕적 지향성, 2가지 딜레마, 2가지 의견 pro/contra)로 구성된 ‘N=1 실험’ 으로 요약된다. 즉, MJT는 인지적 측면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성 발달 6단계에 의한 도덕적 지향성 또는 가치태도를 측정한다.

MJT는 도덕발달 단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Ishida, 2006: 72). 그런데 MJT를 개발한 Lind 교수에 따르면, MJT는 연성의 6단계 또는 7단계를 주장한 후기 Kohlberg의 연구보다는 6단계의 도덕성을 주장한 전기 Kohlberg의 연구 결과에 잘 부합하며, 정의적·인지적 도덕성의 평행발달 경향을 잘 보여주며, 또한 도덕성 발달과 교육의 질적·양적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Lind, 2003; 2005; 2006; 2008).

(2) MJT의 과제

MJT에 대한 한국적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균열 교수와 Lind교수의 개별 인터뷰(2011. 9. 19)에 따르면, MJT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적인 추리를 단계별로 얼마나 명확하게 하는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덕발달의 하위 단계에 높은 평정을 하고 높은 단계에 낮은 평정을 하고,

그와 같은 평정의 내림과 올림의 서열이 유지된다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 MJT가 갖고 있는 단계상의 역설적인 난제가 숨어있다. 하지만 DIT와의 상관관계를 조사·연구한 Lind의 선행연구를 보면, 양자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 낮은 단계의 높은 평정, 높은 단계의 낮은 평정의 경우, 불성실답안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응답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최근 문용린(2011)이 개발한 DIT 문항성실성 검사도구 중에서 2개 정도를 선별적으로 원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를 정신이상자(psychopath) 또는 퇴행(regression) 등 정신적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MJT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복합적 추리에 의한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분야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DIT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속 개발된 MJT가 DIT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향후 윤리적 쟁점의 분야별 갈등 딜레마를 개발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OISE 검사

OISE 검사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교육연구소(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에서 제작한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Kohlberg 검사지를 말한다. 포터와 테일러(Porter, M. & Taylor, N.)는 Kohlberg의 측정 이론을 활용하여 실제로 도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 중, 고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도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 하에 1972년에 이것을 처음 출판하였다고 한다(김안중 외, 1982: 29).

OISE 검사는 다섯 개의 ‘딜레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의 어떤 것은 Kohlberg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Porter와 Taylor가 제작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딜레마 이야기는 Kohlberg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도덕적 갈등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은 인터뷰를 통한 녹음과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두 가지 방식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Porter와 Taylor는 밝히고 있다. OISE 검사는 DIT 및 MJT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택형 검사 방식이 아닌 서술형 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Kohlberg의 자유로운 면담법과는 달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의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으로 보아 자유 서술형과 선택형의 중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 방식은 채점자가 주어진 갈등사태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먼저 읽고, Kohlberg

의 6단계에 대한 설명을 학생의 답을 염두해 두고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답이 몇 단계에 속하는 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한 가지 갈등 사태에 대한 학생의 답을 단계에 따라 ‘순수형’ 과 ‘혼합형’ 으로 나타낸다.

김안중 외(1982)의 연구는 아동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검토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고, Kohlberg 테스트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유사하게 변안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실시하였다. 이야기와 함께 주어지는 질문에서 OISE 검사에서는 6개의 질문이 주어졌지만, 김안중 등의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1, 4, 5, 6번의 4개의 질문을 택하여 그 중 3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OISE 검사의 장점으로는 면접식과 지필식 검사가 모두 가능해 상황에 따라 용이한 방식을 택할 수 있고, Kohlberg의 MJT방식에 비해 채점이 쉬우나, 이 방식 역시 Kohlberg식의 서술형 평가가 가지는 평정자의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이 활용되지 않아 기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4)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

(1) DIT 내용 분석 및 소개

DIT검사는 1972년 Rest가 개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되어왔다. Kohlberg가 주장하는 경성적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해 단순히 부여된 질적인 단계 점수는 다양성의 중요한 근원들을 감추어 버리고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복합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 선호 혹은 단계 사용에 관한 좀 더 개연성 있는 지표를 갖춘 양적인 척도가 DIT이다(Kurtines & Gewirtz, 2004: 164).

DIT에 의해서 사용되는 객관식 선다형 측정은 피검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피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된 답안들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필검사이다. 피검자는 답안들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점수를 주게 된다. DIT에 포함되어 있는 각 딜레마에는 해결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12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위의 주관식 측정의 채점 안내서에 나온 것들로서 도덕적 사고의 전형들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 Kohlberg의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시된 항목들은 1970년대의 6단계 이론으로부터 단순히 연역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백 명의 피험자들이 응답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타낸 것이다. DIT에서 인습

후기 사고 (post-conventional thinking)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단지 J. Rawls의 관점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견해, 자유주의적 견해 및 여타의 인습후기에 해당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김향인, 2000: 229).

DIT에서 피검자들이 하는 일은 제시된 딜레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12개 항목들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순서를 매기는 일이다. 피검자들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성에 따라 각 항목의 진술들을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12개 항목을 모두 평가한 후에 피검자들은 위의 12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요도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에 따라 순위를 매기게 된다.

항목들의 평가 점수와 순위들을 통해 각 피검자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DI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는 P(principled)지수로써 이는 Kohlberg의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인습후기 수준의 항목들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 피검자가 인습후기 수준의 항목을 가장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가 4점만큼 증가하며, 만약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 3점이 증가하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2점, 인습후기 수준의 항목을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 1점이 증가한다. 여섯 가지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전체 P점수는 0점에서 57점에 이르게 된다(전체 P점수가 60점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이야기에 4개의 P항목들 모두가 들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P점수를 ‘최초 P점수 (raw score)’ 라고 한다. 최초 P점수는 다시 퍼센트로 환산된다. 그러므로 P점수는 0에서 95점까지 분포한다. 이러한 P지수는 피검자가 인습후기 수준의 고려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준다. 최근에는 DIT를 점수화하는 다른 방법으로 N2지수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DIT가 개인의 도덕발달단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습후기 수준 (Kohlberg의 5단계와 6단계에 해당)의 정당화를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 장의 혼합적 혹은 연성적 발달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st는 발달적 계열성이 한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계단식으로 갑자기 발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사용하는 분포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김향인, 2000: 230).

DIT가 가지는 장점은 선택형 검사가 가지는 모든 장점들을 공유한다. 채점자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컴퓨터를 활용해 채점이 가능하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도덕 판단력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한국형 DIT가 번안되어 있고, 초등용 DIT까지 개발되어 있어 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방법이 간편하여 검사자의 특별한 설명이나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2) DIT의 과제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서술형 평가로서 대표적인 검사도구인 DIT 는 다양한 언어로도 번안되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발달 경향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문화권에서의 사용가능성이 높은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문용린 외, 2008b).

DIT검사는 Kohlberg가 주장하는 경성적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해 단순히 부여된 질적인 단계 점수는 다양성의 중요한 근원들을 감추어 버리고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복합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 선호 혹은 단계 사용에 관한 좀 더 개연성 있는 지표를 갖춘 양적인 척도가 DIT이다(문용린 역, 2000:164).

DIT에 의해서 사용되는 객관식 선다형 측정은 피검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피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된 답안들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필검사이다. 피검자는 답안들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점수를 주게 된다. DIT에 포함되어있는 각 딜레마에는 해결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12가지 항목들이 있다(김향인, 2000: 229). DIT 채점은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DIT는 P(%), D, 2단계, 3단계, 4단계, 5A단계, 5B단계, 6단계, A, M의 점수를 내게 되어 있다. P(%)점수는 비율점수라고도 하는데, 각 딜레마에 딸려있는 12개의 질문 문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순위매긴 4개의 문항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인습 이후의 5, 6단계의 도덕적 판단의 비율을 의미한다(문용린, 1994). 단계별 점수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의미하는 수치로서 2, 3, 4, 5A, 5B, 6 단계의 점수가 각각 제시된다. M점수는 무의미 문항으로서, 이 점수가 높은 피험자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Rest는 이 점수가 8점 이상(간편형인 경우 4점 이상)인 피험자는 통계 처리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문용린, 1994; 홍성훈, 2010). 그런데 최근 문용린(2011)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KDIT)는 반사회적 지수인 A와 허구점수인 M을 제외하였고, 1, 2, 3, 4, 5, 6단계로 표기하고 있다.

DIT의 D점수는 인습이후 단계인 5, 6단계에 비중을 두는 P(%)점수와는 달리, 모든 단계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도덕성 발달을 산출하는 지수이다. 한편 P(%)점수는 각 딜레마에 제시된 12개의 진술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4개의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서, 각 피험자의 인습 이후 수준의 단계(5, 6단계)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수치가 높은 피험자는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적 사고 구조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수는 인지발달론적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도덕성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홍성훈, 2010).

DIT에 포함되어있는 각 딜레마에는 해결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12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위의 주관식 측정의 채점 안내서에 나온 것들로서 도덕적 사고의 전형들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 Kohlberg의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시된 항목들은 1970년대의 6단계 이론으로부터 단순히 연역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백 명의 피험자들이 응답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타낸 것이다. DIT에서 인습후기 사고 (post-conventional thinking)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단지 Rawls의 관점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견해, 자유주의적 견해 및 여타의 인습후기에 해당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김항인, 2000: 229).

DIT의 가장 큰 약점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자유반응을 고려할 수 없어서 새로운 도덕 인지 구조를 발견할 가능성이 막혀있으며, 이 점 때문에 DIT는 미국 이외의 다른 문화권, 예를 들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소수민족에의 적용이 제한된다(문용린, 1988b). 또한 중3 이상의 문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이병희, 1991).

5)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

Rest가 DIT를 개발하여 보고한 후, 세계 40여 개국, 400여개 이상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에서 이 도구가 사용되었다(Ishida, C. 2006). 55개 이상의 DIT를 사용한 다양한 메타연구도 진행되었으며 (Schlaefli, et al, 1985), Rest의 DIT의 지문이 주로 제시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Meir & Gati, 1981; Gendron, 1981; Thorindson, 1978), 신뢰도(Davison & Robbins, 1978; Rest et al, 1974), 타당도(Martin et al, 1977), 문항분석(Hau, 1983)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DIT 문항이 4단계 및 원리 단계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Gendron, 1981; Thorindson, 1978). DIT가 Kohlberg의 MJT에 비해 도덕적 판단력을 잘 측정하는가에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이다(Elm et al. 1994). Narvaez & Bock(2002)는 DIT는 도덕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라고 보고 있으며, MJT는 도덕적 행동 역량(production competence)을 더 잘 측정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Lind(1998)의 MJT는 복합적인 인지·정의적 추론능력(Competence)을, DIT는 높은 도덕 원리 수준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데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Ishida, C. 2006: 72).

Rest와 동료(1999)들은 DIT의 두 번째 버전인 DIT2를 발표하였는데, 25년간 사용되었던 원래의 DIT에서 딜레마와 문항을 수정하고 채점 알고리즘을 변화시키고, 믿을만하지 않은 응답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수정하고, 보다 짧게 제작하였다. DIT2의 타당성은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의한 차이와 낙태, 학교의 종교, 동성애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와 같은 대중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예언가능성 및 DIT1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관련해서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DIT2는 특히 새로운 지표인 N2 점수를 내게 되어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C. McGeorge(1975)는 착한 척하거나 나쁜 척하는 자기 견해를 기록하는 문제는 한계점은 아닌 것으로 지적하였다. 일정 이상의 도덕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지만, 실제 채점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 우리나라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

문용린(1984; 1994)은 DIT를 ‘학생데모’, ‘학생신문’, ‘고용주의 처지’의 세 이야기를 변안하여 표준화하였다. DIT는 사실 종합형(6개의 이야기 사용)과 간편형(3개의 이야기 사용)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형이 간편형보다 신뢰도가 더 높지만 검사 시간이 길어서 간편형 검사지를 주로 사용한다(홍성훈, 2010).

P(%)점수는 내적신뢰도가 약 .8 수준으로 높고, 연령과 교육기간의 증가에 따른 발달의 경향성을 잘 보여주며, 도덕교육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예민하여 타당도가 양호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수임이 입증되었다(문용린 외, 2008). 문용린(1994)은 기존의 DIT가 지문해석의 어려움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연령으로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된 데 반해 개정된 DIT는 지문의 독해 수준을 낮춤으로써 초등 4학년생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홍성훈, 2010). 단, 검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문 및 문항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새 DIT는 기존의 DIT와 동등한 검사임이 검증되었다(문용린 외, 2008). 또한 2007년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초, 중, 고, 대학생 1994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시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새 규준을 마련하였다(문용린 외, 2008a).

또한 국내에서는 DIT의 P점수와 독일판 도덕 판단 검사지인 MJT의 C점수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이원봉, 2010)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 박찬주(1989)의 연구에서 P와 D점수의 신뢰도(.64이상)를 검증하였으며, 김용주(2010)의 연구에서 .56 ~ .62 수준의 높지 않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병희(1991)는 한국 DIT가 총 36문항 중 18문항에서 적절성이 높고, 나머지 18문항에서 적절성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D점수의 계산은 한국인에게서 얻은 가중점수를 주어 계산해야 하며, 한국인은 3단계 문항을 더 중요한 것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M문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P와 D점수의 신뢰도는 .60이상을 유지하여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 점수들의 신뢰도는 그렇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이병희, 1991, p.15의 표II-1 참조). 따라서 향후 한국판 DIT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DIT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들은 DIT 자체의 타당성 및 문항분석을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DIT로 측정한 도덕적 판단력과 다른 심리 변인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장희선 외, 2010). 이런 맥락에서, KDIT를 표준화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문용린(2011)의 최근 연구 결과는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제 3 장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 결과

1.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
개요
2. DIT를 활용한 청소년용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실시

제 3 장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적용 결과

1.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적용 개요

1) 서술형 평가와 선택형 평가 방식의 결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서는 서술형 검사와 선택형 검사 중 선택형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술형 검사의 경우 면접형과 지필형이 있으나 이들 모두 검사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채점 시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선택형 평가에서는 보기에서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경우이므로 언어 표현의 부담이 거의 없다. 참여자들이 하는 일은 평정과 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또한 평가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를 제공하고, 분명한 답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며, 응답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편리성을 장점으로 가진다. 자유로운 반응들을 평가하기 위해 채점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서술형 평가에 비해 선택형 평가에서는 채점 과정의 편리성을 제공한다(Rest et al., 1999: 51-52).

2) 선택형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대안으로서 DIT

도덕적 판단력 측정을 위한 선택형 검사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T와 MJT가 있다. DIT는 MJT에 비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어온 검사도구이다. 한국형 DIT 역시 개발되어 있으며, 그 채점 방식이 용이하고, 도덕적 판단력의 단계보다는 도덕적 판단 중 인습이후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연속 점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인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Rest의 4구성 요소에 두고 있고, 이중 제 2요소인 도덕추론 능력 혹은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할 경우 연구의 기본 이론을 제공한

학자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DIT는 최적의 검사도구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연구를 위해 Rest의 도덕성 4구성 요소에 따른 4가지 검사도구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검사 시간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OISE와 같은 서술형과 DIT의 선택형을 결합한 검사보다는 선택형 DIT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검사도구의 기본 틀에 있어서 척도의 수준을 5가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DIT검사가 본래 가진 5점 척도(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최적으로 판단된다.

2. DIT를 활용한 청소년용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실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검사하는 최적의 도구로는 문용린이 2011년에 발간한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한국판 도덕 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에 실린 DIT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DIT를 활용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DIT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금번에 활용한 검사는 개정된 DIT(문용린 외, 2007)의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구현하기 위해 반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A문항과 허위성을 나타내는 M문항을 없애고 그 개수만큼 1단계 문항을 추가 하였다. 대신, 응답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정된 DIT 전체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P(%)점수의 신뢰도는 .61로 기존 DIT보다 다소 높아졌다(문용린, 2011:4). 개정된 DIT검사의 개요와 예비 검사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1) 개정된 DIT 검사 개요

2007년 문용린이 개정한 DIT 검사는 세 가지 딜레마(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① 훔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신고해야 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법을 어긴	⑤	④	③	②	①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5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나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표 III-1 K-DIT 문항 구성과 도덕판단 단계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편의 고민	4 (단계)	3	2	1	3	4	1	6	1	5	3	5
탈옥수	3	4	1	4	6	1	3	4	3	4	5	5
환자의 애원	3	4	1	2	5	1	3	6	4	5	4	5

〈남편의 고민〉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v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v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v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v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v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v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v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v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v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v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4단계)	3(2단계)	4(1단계)	8(6단계)

위의 ‘남편의 고민’ 딜레마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점 10점 중 5, 6단계 점수의 분포를 계산한다.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4순위로 1점만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딜레마의 P점수는 1(점)/10(총점)으로 10퍼센트(%)로 계산된다.

〈탈옥수〉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문
	v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v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v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벌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v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v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v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v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v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v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v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v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1(5단계)	1(3단계)	4(4단계)	2(4단계)

위의 탈옥수 딜레마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점 10점 중 5, 6단계 점수의 분포를 계산하므로,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1순위로, 4점만 계산한다. 그러므로 P점수는 4(점)/10(총점)으로 40퍼센트(%)로 계산된다.

〈환자의 애원〉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v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v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v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v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v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v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v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v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v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v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v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4단계)	8(6단계)	4(2단계)	1(3단계)

위의 아내의 애원 딜레마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점 10점 중 5, 6단계 점수의 분포를 계산한다.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2순위로

3점만 계산한다. 그러므로 P점수는 3(점)/10(총점)으로 30퍼센트(%)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총 P(%)점수는 세 이야기 총점 /3 으로 계산하여, (10(점) + 40(점) + 30(점))/3 = 26.7(점)이 된다.

3) 허위 문항 점검

DIT검사 결과 중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1) 동일응답지수(NoDIF)

검사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쓰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일응답지수(non-differentiation of rates or ranks, NoDIF) 방법이 있다. 응답 형태를 분석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답을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DIT의 경우 중요도를 평정해야 하는 12개 문항 중에서 1점에서 5점 중 서로 다른 점수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순위 평가에서도 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이 점검을 통과할 수 있다(문용린, 2011:59-60).

(2) 무응답지수(MISRT, MISRK)

이 방법은 응답자들이 몇 개의 문항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아서 응답의 도덕적 판단을 측정할 만큼 적정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수가 무응답 지수이다. 각 사례별로 12개씩 주어지는 중요도 평정(전체 3개 사례 36개 문항)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가 9개 이상일 경우를 점검하는 방법이 MISRT(missing rate)이다. 또한 4가지 순위를 매기는 문항 12개 중 6개 이상의 무응답 문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MISRK(missing rank)이다(문용린, 2011:60-61).

(3) 평정-순위 일치도(RtXRk)

DIT 검사에서 각 문항의 중요도는 낮게 평정한 후, 순위 매기는 문항에서는 높게 매긴 응답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평정-순위 일치도(rate and rank consistency, RtXRk) 방식이다. 12개의 문항에 각각 평정한 값에 의해 매겨진 문항 순위와 선택된 4개의 문항에 매겨진 순위가 일치하는 정도를 계산한 값이다. 이 값이 50을 초과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응답으로 판단된다(문용린, 2011:61).

(4)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

본 DIT 검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문항 성실도를 살펴본 결과 1차 검사는 동일응답지수(NoDIF)의 전체 대상의 10.3%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는 이를 1.5%수준으로 줄였다. 그 외 무응답지수(MISRT-missing rate, MISRK-missing rank), 평정-순위 일치도(RtXRk)는 모든 대상들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

		1차(N=262)	2차(n=137)
NoDIF	FAIL	27(10.3)	2(1.5%)
	PASS	235(89.7)	135(98.5)
MISRT	PASS	262(100.0)	137(100.0)
MISRK	PASS	262(100.0)	137(100.0)
RtXRk1	M(최소~최대)	7.26(0~13)	7.80(3~10)
RtXRk2	M(최소~최대)	7.19(0~12)	8.31(4~10)
RtXRk3	M(최소~최대)	7.02(0~12)	8.64(0~10)
RtXRk	M(최소~최대)	21.48(0~32)	24.74(11~30)
	PASS	262(100.0)	137(100.0)

4) DIT의 신뢰도

검사도구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DIT 문항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3 미국판 DIT의 신뢰도

Cronbach alpha	
표집	P 점수
1979년 표집(N=994)	.76
1995년 표집(N=932)	.78

(문용린, 2011:76)

위의 표에서와 같이 Rest가 작성한 DIT검사의 원형인 1979년에 개발한 검사는 Cronbach's α 값이 .76이었고, 1995년 개정된 DIT검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78로 보고되었다.

이 검사를 외국어로 번역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 비교

언어	Cronbach's alpha
영어 판(Rest et al., 1999)	.78
브라질어 판 (Shimizu, 2004)	.39
스페인어 판(Zerpa & Ramirez, 2004)	.71
중국어 판(Lin et al., 1986)	.54
개정 전 한국어 판 (문용린, 1994)	.52
개정 전 한국어 판 (문용린 외, 2007)	.61

(문용린, 2011:7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권과 유사한 스페인어 판에서는 .7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중국어, 한국어, 브라질 판에서는 각각 .54, .52(.61), .39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어를 번안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판의 DIT를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II-5 한국판 DIT P(%)점수의 문항 내적 신뢰도

연령/교육 수준	Cronbach's alpha
초등학생(N=539)	.55
중 · 고등학생(N=745)	.59
대학생 및 성인(N=600)	.63
전체	.61

(문용린, 2011:77)

위의 표를 보면 대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DIT검사에서는 .63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 · 고등학생의 경우 .59, 초등학생의 경우 .55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항 내용의 이해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Ⅲ-6>은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를 1994년, 2011년 그리고 청소년 도덕성 검사(2차)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의 신뢰도를 종합해 보았다. 본 연구의 청소년 도덕성 검사 1차에서는 2단계와 4단계, 6단계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다시 2차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문항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P점수에 대한 Cronbach's Alpha(α)는 1994년은 0.52, 2011년은 0.61,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616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각 Stage별 신뢰도는 1994년은 1단계가 없어서 그 신뢰도는 제외되었으나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에서는 0.61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단계는 1994년 0.23,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246, 3단계는 1994년 0.47,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433, 4단계는 1994년 0.45,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373, 5단계는 1994년(5A) 0.43,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546, 6단계는 1994년 0.11,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296으로 나타나 4단계는 다소 낮았으나 그 외 단계에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므로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조사 결과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

표 Ⅲ-6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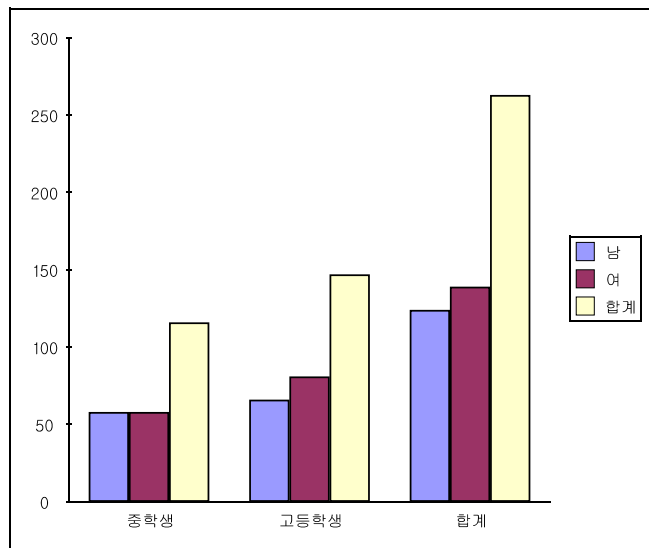
Stage or Score	K-DIT(1994)	K-DIT(2011)	청소년 도덕 판단력(2011)	
			1차(N=)	2차(N=262)
1	—	기술내용없음	0.477	0.615
2	0.23	기술내용없음	0.075	0.246
3	0.47	기술내용없음	0.455	0.438
4	0.45	기술내용없음	0.265	0.373
5	0.43	기술내용없음	0.531	0.546
6	0.11	기술내용없음	0.051	0.296
A	0.27	기술내용없음	—	—
M	0.38	기술내용없음	—	—
P	0.52	0.61	0.505	0.616

5) 1차 예비검사 실시와 문제점

개정된 DIT를 활용해 서울 시내 거주하는 중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표 Ⅲ-7> 참조).

표 Ⅲ-7 1차 검사 연구 대상

학교급별	남	여	합계
중학생	58(50%)	58(50%)	116(100%)
고등학생	66(44.5%)	81(55.5%)	147(100%)
합계	124(47.1%)	139(52.9%)	263(100%)



【그림 Ⅲ-1】 1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제1차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허위문항에 해당하는 응답이 20여 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높여 성실한 응답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1차 예비검사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문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시하거나, 질문을 써넣도록 하였다. 이 결과, DIT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응답을 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앞부분에서 검사 예시문항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 문항을 2차 검사에서 첨부하도록 하였다.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 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셋째, 조사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조사원들이 조사 초기에 제시하는 검사 안내를 통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검사자 매뉴얼을 개발하여 2차 검사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검사 실시 요령〉

1. 검사지를 1인 1매씩 나누어 준다.
2. 먼저 1쪽 안내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검사 취지를 설명한다.
3. 검사는 1쪽의 기본 문항, 2쪽의 연습문제, 3쪽 이후의 본 검사로 이루어있음을 안내한다.
4. 2쪽 연습문제(자전거 사기)를 읽어가며, 자신의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한다.
5. 순위매기기(1-4순위)에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에 표시한 문항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되, ‘매우 중요하다’에 3개 표시한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질문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남은 것 중 ‘대체로 중요하다’에서 골라 4순위 번호를 적도록 한다.
오류 설명: 흔히 학생들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1순위 번호를, ‘대체로 중요하다’에서 2순위 번호를, ‘약간 중요하다’에서 3순위 번호를 표시하는 오류를 범하곤 함을 지적해주도록 한다.
6. 본 검사는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실시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진에서는 남녀공학 고교/중학교 각 1개 학교 각 2개 반씩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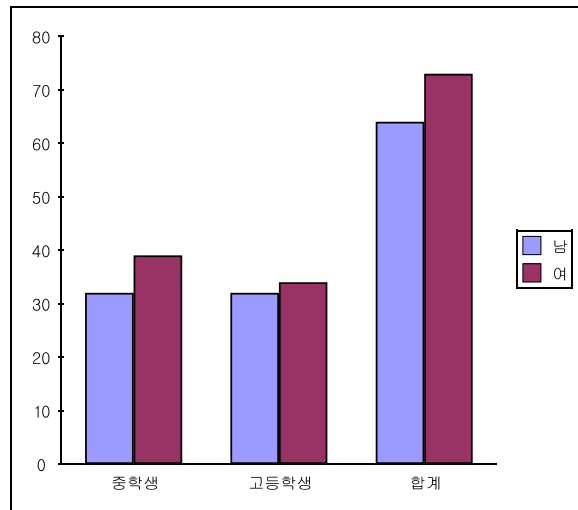
6) 2차 예비검사 결과 분석

(1) 연구대상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총 137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46.7%, 여학생은 53.3%로서 여학생이 약간 많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8 2차 검사 연구 대상

학교급별	남	여	합계
중학생	32(45.1%)	39(54.9%)	71(100%)
고등학생	32(48.5%)	34(51.5%)	66(100%)
합계	64(46.7%)	73(53.3%)	137(100%)



【그림 Ⅲ-2】 2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2차 예비검사 대상 전체 137명의 응답자 중 허위반응 검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차 예비검사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검사 안내 매뉴얼 개발 및 검사연습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의 문제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전체 P(%)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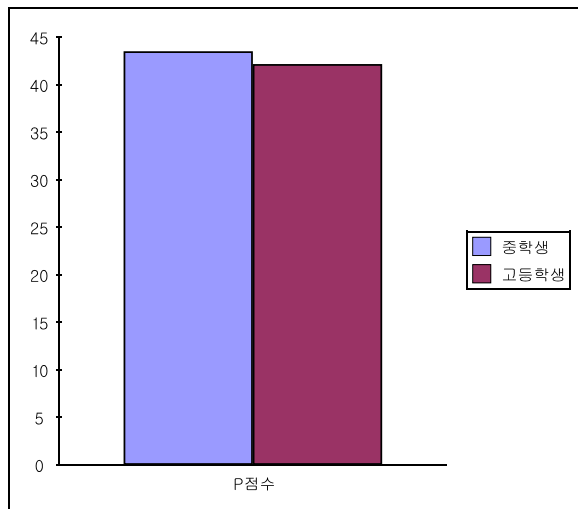
137명의 전체 P점수는 42.87로 나타났다. 2007년 DIT 재표준화의 연구 대상을 기준으로 한 점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18.9, 초등학교 고학년 26.2, 중학생 36.1, 고등학생 38.7, 대학생 43.2, 일반 성인 35.8로 나타났다. 금번 제2차 예비검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P점수가 42.87로 나타나, 대학생 수준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3) 학교급별 비교 분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도덕적 판단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표 III-9 학교급별 P점수 비교

	중학생		고등학생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점수	43.52	15.37	42.17	14.01	.536	-



【그림 III-3】 학교급별 P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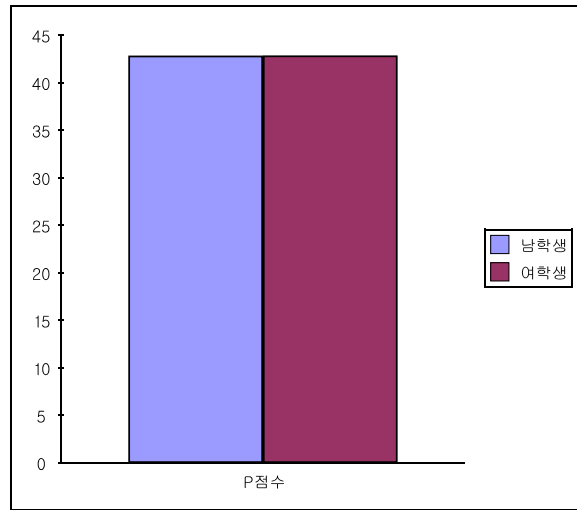
분석 결과, 중학생은 43.52, 고등학생은 42.17로 중학생의 P점수가 1.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P점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4) 성별 차이 비교 분석

도덕적 판단력에 있어서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중·고등학생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III-10 전체집단(중+고)의 성차

	남학생		여학생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점수	42.86	12.77	42.87	16.28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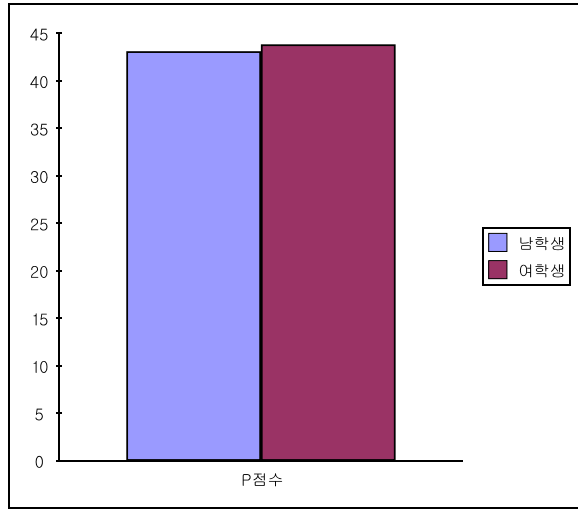


【그림 III-4】 성별 P점수 분포

남학생의 경우 42.86, 여학생은 42.87로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III-11 중학생 집단의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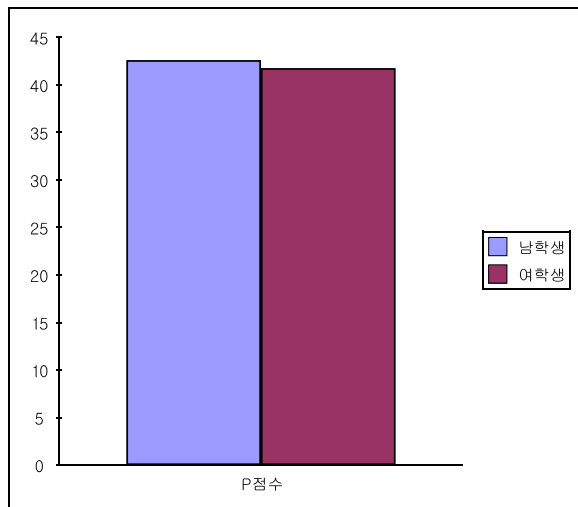
	남학생		여학생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점수	43.12	13.14	43.84	17.16	-.195	-



【그림 Ⅲ-5】 중학생 집단의 성별 차이

표 Ⅲ-12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

	남학생		여학생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점수	42.60	12.60	41.76	15.40	.241	—



【그림 Ⅲ-6】 고등학생 집단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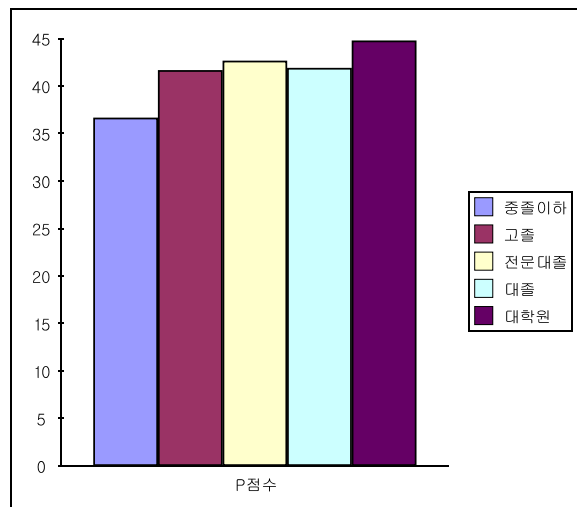
위의 두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 남녀별 차이는 .72로 여학생의 P점수가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84정도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문용린(2011)에 의하면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도덕적 판단력의 남녀 차이가 국내외에서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여학생의 도덕적 판단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문용린, 2011:90-91). 금번 조사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 부모의 학력에 따른 비교 분석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 수준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P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III-13 부 학력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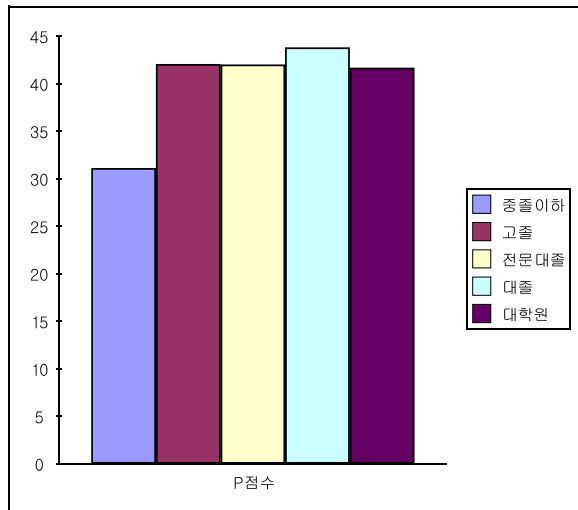
중졸이하(2)		고졸(6)		전문대졸(5)		대졸(82)		대학원(41)		F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6.66	9.42	41.66	17.48	42.66	10.38	41.91	14.60	44.79	15.27	.355	-



【그림 III-7】 부 학력에 따른 자녀의 P점수 비교

표 III-14 모 학력 비교

중졸이하(3)		고졸(13)		전문대졸(5)		대졸(83)		대학원(30)		F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1.11	11.70	42.05	14.50	42.00	13.86	43.81	15.10	41.66	14.21	.624	-



【그림 III-8】 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P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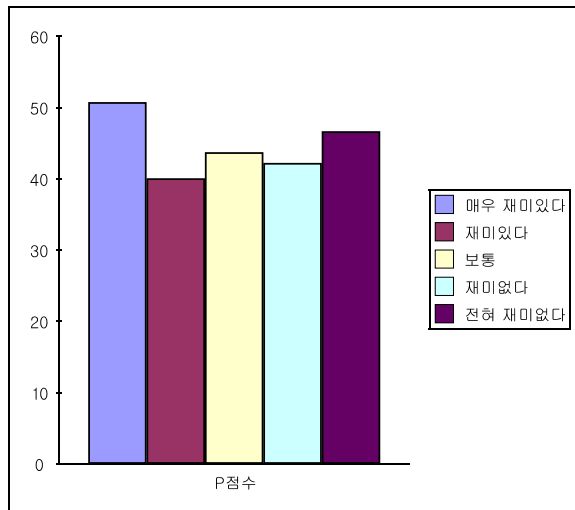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 구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대학 졸업(82명), 대학원 졸업(41명)이었고, P점수의 분포는 중졸 이하 36.66점, 고졸 41.66점, 전문대졸, 42.66, 대졸 41.91점, 대학원 44.79점으로 대략 학력이 높을수록 P점수가 높아졌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아버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P 점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6) 도덕윤리 관련 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분석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한 도덕윤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에 따라 P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15 도덕윤리 관련 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매우 재미있다 (15)		재미있다 (54)		보통 (53)		재미없다 (15)		전혀 재미없다 (1)		F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50.76	11.31	40.06	14.34	43.71	15.52	42.22	14.67	46.66		1.515	-



【그림 III-9】 도덕윤리 관련 과목 흥미도에 따른 P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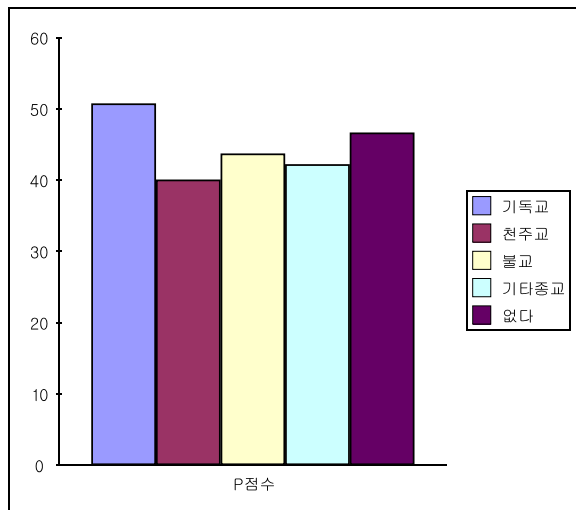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와 같이, 도덕윤리 관련 과목의 흥미도는 재미있다 54명, 보통 53명, 매우 재미있다 15명, 재미없다 15명, 전혀 재미없다 1명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고, 이 중 P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면, 매우 재미있다(50.76점), 전혀 재미없다(46.66점), 보통(43.71점), 재미없다 (42.22점), 재미있다(40.06점)순이었으나, 이러한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도덕윤리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에 따른 P점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7) 종교 유형에 따른 비교 분석

응답자들의 종교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P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16 종교 유형에 따른 비교

기독교(51)		천주교(18)		불교(8)		기타종교(0)		없다(59)		F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40.84	16.31	48.14	14.51	36.25	8.8	0		43.84	13.65	1.7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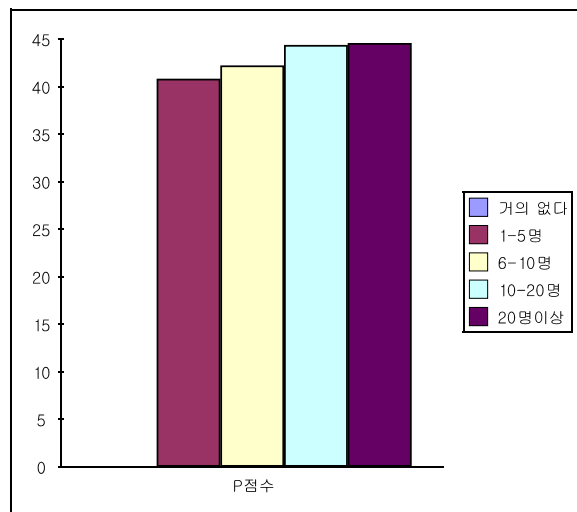
【그림 III-10】 종교 유형에 따른 P점수 비교

종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P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면 천주교 48.14점, 없다 43.84점, 기독교 40.84점, 불교 36.25점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문용린(2011)에 의하면 2,000 여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종류를 묻고, 각 집단의 도덕적 판단력 점수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외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하다(문용린, 2011:92-93). 종교의 가입 여부와 같은 단순한 변인만으로 도덕적 판단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다.

(8)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비교 분석

표 III-17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비교

거의 없다(0)		1-5명(32)		6-10명(48)		10-20명(32)		20명이상(24)		F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	.	40.83	15.14	42.22	13.68	44.37	15.57	44.58	15.59	.448	-



【그림 III-II】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P점수 비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큰 시기로서, 금번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친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친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5명 40.83점, 6-10명 42.22점, 10-20명 44.37점, 20명 이상 44.58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근소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순한 친구의 수에 따른 도덕적 판단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응답자별로 친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 4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제 4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James Rest가 제시한 4구성 요소(Four Components: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덕 판단력의 경우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표준화된 DIT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도덕적 판단력 검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 개발 연구들을 소개하고,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로 구분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선택형 검사도구인 DIT(Defining Issues Test)를 활용하기로 판단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DIT 검사지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1차 예비검사에서 서울 소재 중학생 116명, 고등학생 147명이었고, 2차 예비검사에서 서울 소재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66명이었다.

연구 결과로는 2007년 개정된 DIT검사의 1차 검사결과, 허위문항에 해당하는 응답 20여 건이 발견되었다. 전체 응답 비율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집중도를 높여 성실한 응답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예비검사 결과 집단별 통계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부모학력에 따른 비교, 종교, 친구 수,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P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2차년도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위해서 제1차 연도의 본 연구 결과가 제기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조사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DIT 검사 안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먼저 검사 시간의 준수이다. 검사시간을 너무 짧게 하거나 길게할 경우, 검사의 신뢰도를 낮게 할 수 있다. 매뉴얼에 제시된 30분의 시간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1차 예비검사 후, 개발된 〈검사 실시 요령〉내용을 숙지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1차 검사에서는 도덕 감수성, 도덕 품성화 등의 여타 검사와 본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많은 내용에 대해 응답해야 했으므로 응답자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의 4구성 요소를 동시에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4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응답자의 피로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1차 예비검사에서 지적된 문항의 난이도를 개선하고자 용어의 변환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검사는 이미 공인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검사이다. 이해도의 문제로 문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표준화된 검사지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항을 수정하기 보다는 조사원들의 교육을 통해, 응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2차 예비검사에서 분석한 성별, 학년별, 부모 학력별, 도덕윤리 과목 흥미도별, 종교별, 친구 수별 분석에서 어느 항목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다. 향후 검사에서는 위 변인 이외에 응답자의 도덕적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성적, 언어 이해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봉사활동 참여 정도 등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DIT는 1972년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왔다. DIT는 선택형 검사가 가지는 장점들을 공유하며, 검사 방법이 간편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DIT는 선택형

검사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Lind의 MJT는 DIT와 마찬가지로 선택형 검사이긴 하지만, MJT는 도덕발달 단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Ishida, 2006: 72), 정의적 메커니즘과 인지적 메커니즘의 병행을 잘 보여주며, 교육의 양적 정도 및 질과 도덕성 발달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다(Lind, 2003; 2005; 2006; 2008). 그리고 DIT의 P점수와 MJT의 C점수 관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이원봉, 2010)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DIT와 MJT 장점을 극대화하고, 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한국형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요컨대, Rest의 DIT와 Lind의 MJT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두 검사 간의 상호 보완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력을 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 과제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석만(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신영 · 임지연 · 김상욱 · 박승호 · 유성렬 · 최지영 · 이가영(2006).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안중 · 박천환 · 신신철 · 조난심(1982).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주(2010). 도덕성 발달과 신앙 발달과의 상관관계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향인(2000). 도덕판단력 측정에 대한 고찰: DIT와 MJT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12.
- 김향인(2005). 도덕판단발달과 측정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집.
- 문용린(1988). 도덕과 교육론. 서울: 갑을 출판사.
- 문용린(1988a).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고찰. 한국교육, 15(1).
- 문용린(1994).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판단력 진단검사(DIT)의 표준화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보고서. 미간행 연구물.
- 문용린(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서울: 집문당.
- 문용린, 김민강, 엄채운(2008a). 한국판 도덕 판단력 검사(KDIT)의 세 가지 지수의 타당도비교. 교육심리연구, 22(4).
- 문용린 · 김민강 · 이지혜 · 원현주(2008b).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 박균열(2006).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과교육, 제23호.

- 박찬주(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화 외(2006). 한국 4, 5세 유아의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 영역 창의성의 발달적 특성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6(5).
- 이경화(2002). 창의성 발달의 이론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1 (2), 48-67.
- 이경화(2003). 초등학생 창의성의 발달적 특성과 창의성 계발, 창의력교육연구, 6권 1호.
- 이병희(1991). 도덕판단력 검사(DIT)의 문항 적절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봉(2010). KMIT의 P-지수와 MJT의 C-지수 비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실증 연구.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곽수민(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희선 · 문용린(2010). 도덕판단력검사(DIT)의 초등학생 이해도 분석. 교육심리연구, 24(2).
- 추병완(1996)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도덕윤리과교육연구, 7.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도서출판 백의.
- 한순미 · 김선 · 박숙희 · 이경화 · 성은현(2005). 창의성-사람, 환경, 전략. 서울: 학지사.
- 홍성훈(2010). 청소년 도덕성 발달 진단의 현황과 과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 Amabile, T. M.(1995). *The personality of creativity*. In Joyce, M, Isaksen, S., Puccio, G, Davidson, F., & Copping, C. (Eds.), *An introduction to creativity*, Massachusetts: Copley Publishing Co.(pp.71-75)
- Bandura, Albert(2003),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공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 Bebeau, M. J, J. Rest, & C. M. Yamoore(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s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 Bebeau, M. J., Born, D. O., & Ozar, D. T.(1993).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60(2),

27-33.

- Blasi, A.(2008). 도덕적 인격의 심리학적 접근. D. K. Lapsley & F. 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Boden, M A.(1991). *The creative mind: Myths & mechanisms*. Basic Books. New York: N.Y.
- Chang, F Y.(1993). *The development of a 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Crisham, P.(1981). *Moral judgment of nurses in hypothetical and nursing dilem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Davison, M. L. R & Robbins. S.(197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bjective indices of Moral Development.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380-401.
- Elm D. R. & Weber, J.(1994). Measuring moral judgment: The Moral Judgment Interview or the Defining Issues Tes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ume 13, Number 5, 341-355.
- Gendron, L.(1981). *An Empirical Study of the Defining issues Test in Taiwan*, Manuscript. Fujen Catholic Univ. Taiwan.
- Guilford, J. P.(1967). Creativity: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 3-14.
- Hau, K. T.(1983). *A Cross cultural study of a Moral Judgment Test(the Dit)*. Master Thesis, Chinese Univ. Hong Kong.
- Ishida, C.(2006). How Do Scores of DIT and MJT Differ?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Use of Alternative Moral Development Scales in Studie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7; 63-74.
- Kirschenbaum, H., 추병완 · 김향인 · 정창우 공역(2006). 도덕·가치교육을 위한 10가지 방법. 서울: 울력.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s in Years 10 to 1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64).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Kohlberg, L.(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ume 1 :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김민남 · 김봉소 · 진미숙 공역(2004),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Kurtines, W. M. & Gewirtz, J. L. 문용린 역(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Lapsley, D. K. 문용린 역(2000). *도덕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Lind, G. (1998). *An Introduction to the Moral Judgment Test(MJT)*,
<http://www.uni-konstanz.de/ag-moral/pdf/MJT-introduction.pdf>.
- Lind, G.(2006). 30 Years of the Moral Judgment Test – Support for the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of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http://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
- Lind, G.(2000/2003).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oral Judgment Test(MJT),
<http://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
- Lind, G.(2002/2010). Scoring and Interpreting the Moral Judgment Test(MJT),
Moralisches Urteil–Test(MUT):An Introduction,
<http://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
- Lind, G.(2003), Standard Version and Administration,
<http://www.uni-konstanz.de/ag-moral>
- Lind, G.(2005).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Moral Judgment Test (MJT) – Confirmation of 17 Cross–Cultural Adaptations,
<http://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
- Lind, G.(2007). Constructing New Dilemmas for the Moral Judgment Test(MJT),
<http://www.uni-konstanz.de/ag-moral>
- Lind, G.(2008).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Competency,

- in: Fasko, Daniel, Jr. & Willis, Wayne(eds.), *Contemporar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NJ: Creskill. <http://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
- MacDonald, C.(2002). Moral decision making—An analysis, <http://www.ethicsweb.ca/guide/moral-decision.html>
- Martin, R., Shafo, M., & Andeinse, W. (1977).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Design of the Defining Issues Test.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460–468.
- McGeorge, C.(1975). Susceptibility to faking of the Defining Issues Test of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1), 108.
- Meir, E. L & Gati,(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011–1016.
- Mischel, W.(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L. Berkowitz(ed.),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Vol.7, New York: Academic Press.
- Musser, L. M. & Leone, C.(1992). *Moral Character: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R. T. Knowles & G. F. McLean,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An Integrated Theory of Moral Development*.
- Narvaez D., & Bock, T.(2002). Moral Schemas and Tacit Judgement or How the Defining Issues Test is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ume 31, Issue 3, 2002, pp. 297–314.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 Narvaez, D & D. K. Lapsley(2008). 일상의 도덕성과 도덕적 전문성의 심리학적 기초. D. K. Lapsley & F. 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Osborn, A. .F.(1963)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Third Revised Edition). NY: Charles Scribner' s Son.
- Peterson, C & M. E. P.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2009).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Plucker J., & Zabelina, D.(2004). Creativity and interdisciplinary: one creativity or many creativitie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Law*, 41(1-2), 5-11.
- Porter, N. & Taylor, N.(1973). *How to Assess the Moral Reasoning of Student*, Toronto: OISE.
- Rest, J. R.(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 John Wiley & Sons.
- Rest, J. R.(1985),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M. W. Berkowitz & F. Oser(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Jersey: LEA, pp.9-25.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est, J. R., Copper, D., Coder, R., Masanz, J. & Anderson, D.(1974).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 An Objective Measur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491-501.
- Rest, J. R., Narvaez, D., Thoma, S. J., Bebeau, M..(1999) DIT2: Devising and testing a revised instrument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1(4), 644-659.
- Rest, J. 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서울: 학지사.
- Rest, J., Narvaez, D., Bebeau, M., Thoma, S.(1999).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w-Kohlbergian approach*. Lawrence Erlbaum:London.
- Schlaefli, A, Rest, J. R. & Thoma, S. J.(1985). Does Moral Education Improve Moral Judgment?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Using the Defining Issues Tes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Fall 1985 55: 319-352.
- Shane J. Lopez, C. R. Snyder Eds(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이영호 · 조성호 · 이희경 역(2008). 긍정심리 평가; 모델과 측정. 서울: 학지사.
- Thorindson(1978). *Social Organization*. Role-taking, Elaborated Language and Moral Judgment in an Icelandic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Iowa Univ.

- Torrance, E. P.(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Now available from William Krieger Publishers).
- Walker, L. J.(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부 록

1. OISE 검사 예 및 채점 방식
2. Lind의 MJT
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
년도 안) - 도덕적 감수성·동기화·
품성화·판단력
4.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
논의 과정

부록 1

OISE 검사 예 및 채점 방식
(Porter & Taylor, 1973)

1. 검사 예

이 질문지는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 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물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수와 라디움 약

철수의 아버지는 의사들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의 아버지를 살리는 데는 어느 약제사가 제조해 낸 라디움 성분의 약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 약을 한 병 만드는 데에 10만 원 정도 들 뿐인 데, 그 약제사는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철수는 100만원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 다녔다. 그러나 철수는 50만원 밖에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약제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해 보았다. 50만원만 받고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나머지 50만원을 나중에라도 갚도록 해주고, 그 약을 우선 자기에게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제사는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했다. 그 약은 적어도 1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인데 그 반값만 받고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철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자신의 처지에서 나머지 50만원을 구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철수는 그 약제사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약을 훔쳐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것인가?

1) 철수와 같은 경우, 그 약을 훔쳐서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생명을 못 구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훔쳐야 한다. 훔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 :

(*철수가 그 약을 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하십시오)

2) 철수가 자기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철수는 그 약을 훔쳐야 합니까?

(*철수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하십시오)

3) 만일 당신이 철수이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 해도 당신은 그 약을 훔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답하십시오)

4) 철수가 그 약을 훔치려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때 판사는 철수에게 징역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채점 요강

3단계' 는 순수형 3단계이고 '3(2)단계' 는 혼합형 3단계로서 피험자의 답안이 부분적으로는 3단계에 속하지만 2단계에 속하는 경우일 경우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갈등사태 모두에 대한 채점을 완료하고, 그 학생의 전체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해 낸다.

- (1) 그 학생의 각각의 갈등사태 이야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모두 나열한다.
- (2) '순수형' 의 경우에는 3점을 주고, '3(2)단계' 와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 2점을, 2단계에 1점을 준다.
- (3) 각 단계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후, 어느 한 단계가 50%이상으로 나오면 그것이 그 학생의 '주단계(major stage)' 에 해당하며, 만일, 어느 한 단계에서 25% (50%이하) 이 나오면 그것이 그 학생의 '부단계(minor stage)' 에 해당한다.
- (4) 만일 어떤 학생이 50% 이상의 단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학생의 "주단계" 는 없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수준을 매길 수 없다.

- (5)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주단계를 측정하는 외에, 콜버그는 “도덕적 성숙도(Moral Maturity Score)”를 산출하는 방식을 구안했다. 1단계에는 1점을, 2단계에는 2점을, 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내고, 특정 학생이 가진 단계를 그 학생이 그 단계에서 차지한 백분율로 곱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위의 S1의 경우, $(25\% \times 2) + (75\% \times 3) = 275$ 라는 ‘도덕성 성숙도’가 나온다. (김안중, 1982:74-75)

부록 2 Lind의 MJT

○ MJT의 구조 및 문제지

1. MJT 구조(N=1 실험으로서 MJT)

MJT는 피험자에게 두 가지 딜레마(의사의 딜레마와 노동자의 딜레마)를 준다. 그리고 MJT는 각각의 딜레마에 두 가지 하위 테스트로 구성된다. 각 이야기에는 어떤 행동에 관련되어 딜레마에 처한 사람이 등장하며, 그러한 딜레마로 인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동에 결부된 몇 가지 규칙들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데 MJT는 MJI와 DIT와 다르게 딜레마의 해답을 미리 준다.

피험자는 행위자의 결정을 ‘옳은 것’ 또는 ‘그른 것’ (Scala -3~Scala +3, 0포함)으로 평가한다. 그 이후 딜레마의 해답에 찬성하는 6가지 논증과 딜레마 해답에 반대하는 6가지 논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피험자는 9단계-Scala(‘적극적 수용’ 에서 ‘적극적 불수용’ , Scala -4~Scala +4, 0포함)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MJT는 물론 7, 5 또는 3단계-Scala로 구성된 다양한 버전이 있다.: Scala의 분화는 피험자 집단의 인지 수준에 맞춘 것이다. 인지 발달 수준이 높은 피험자 집단일수록 Scala가 더 분화된 질문지에 답하게 된다.) 그리고 피험자는 주어진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예를 들면, 법적 문제, 종교적 문제, 도덕적 문제 등)를 다루고 있는지에 답한다.

MJT는 피험자의 결정 자체보다 결정의 ‘질’ 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결정의 질은 결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다. MJT는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인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외부의 압력을 받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전제한다.

2. 문제지: 영어 버전 예시(Lind, 2006)

한글 버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MJT 영어 버전을 예시함.

The Moral Judgment Test (MJT)

© Copyright for this and all other language versions
by Georg Lind²⁹ 1977 - 2004

(Last revision of this text: March 4, 2004)

The holder of the copyright for all versions of the *Moral Judgment Test (MJT)* is the author, Dr. Georg Lind. The authors of translated versions hold a co-copyright. The MJT can be used for free in research and teaching by public institutions. For use of the MJT by private institutions and commercial projects (program evaluation and alike) or by privately finance projects, please contact the author. The joint copyright for translated and certified versions of the MJT is with the author of the translated version. A list of validated and certified versions of the MJT is to be found on the web: <http://www.uni-konstanz.de/ag-moral/>.

The use of the MJT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is free. All other usage requir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The standard version of the MJT must not be altered without consent by the author. Each copy page of the MJT must bear the copyright note(c) 1977-2002 Lind. If a non-certified version of the MJT is used, this must be made recognizable for the reader.

The MJT is designed for research and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s and policies only. It is **not** designed as an instrument for evaluating people or groups or the use as a high-stakes test. The MJT has been constructed on the basis of Lind's Dual Aspect Theory of moral judgment and development to assess subjects' moral judgment competence as defined by Lawrence Kohlberg (e.g., 1964, p. 425). More details on the MJT and guidelines to establish cross-cultural validity of translated versions are available from this web-site: <http://www.uni-konstanz.de/ag-moral/>.

In pretest-posttest-studies, test weariness may be a problem, resulting in an unusual lowering of the C-score on the retest. This or a similar instruction helps to avoid this problem: "Some of the questions will be the same as you have been given the first time. We want to know whether your thoughts have changed. Please fill them out as sincerely as you did the first time."

This version of the MJT has been in use since 1977, slightly revised in Dec. 2001, replacing "acceptability" judgments by "acceptance" and "rejection" judgments.

Note: Do not publish this test without written consent by the author.

²⁹ Author's address: Prof. Dr. Georg Lind, University of Konstanz, Department of Psychology, D-78457 Konstanz, Germany. Fax: +49-7531 882890, Phone: +49-7531 882895. E-mail: Georg.Lind@uni-konstanz.de. Web site: <http://www.uni-konstanz.de/ag-moral/>

Only for the project administrator:

1. Date:
2. Name of the project administrator:
3. Name of the project :
4. Number of th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on Ethical Problems

(The following identification code is only needed in follow-up studies)

This questionnaire study will be repeated. To be able to match parts from the same person, we need an identification.

Please do not enter your name anywhere on the questionnaire.

For identification, please fill in the following questions instead:

The first two letters of your mother's first name: (e.g., Jessica -> "J|E")

The first two letters of your father's first name: _ | _

The last two digits of your house number: | (if it has only one digit, please write a leading "0", e.g. "0 | 2")

The day of your birth (e.g., "05" for fifth of...): _ | _

5. Please copy the above numbers to here: ____ | ____ | ____
____ | ____ | ____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6. If you responded to these questions previously:
Has your address changed in meantime? If YES
please give your previous house number: ____ | ____ (last two digits)

1. Workers' Dilemma

Due to some seemingly unfounded dismissals, some factory workers suspect the managers of eavesdropping on their employees through an intercom and using this information against them. The managers officially and emphatically deny this accusation. The union declares that it will only take steps against the company when proof has been found that confirms these suspicions. Two workers then break into the administrative offices and take tape transcripts that prove the allegation of eavesdropping.

7. Would you disagree or agree with the workers' behavior?

I strongly disagree I strongly agree
-3 -2 -1 0 +1 +2 +3

How acceptable do you find the following arguments *in favor* of the two workers' behavior? Suppose someone argued they were *right* . . .

I strongly reject I strongly accept

8. because they didn't cause much damage to the company. -4 -3 -2 -1 0 +1 +2 +3 +4
9. because due to the company's disregard for the law, the means used by the two workers were permissible to restore law and order. -4 -3 -2 -1 0 +1 +2 +3 +4
10. because most of the workers would approve of their deed and many of them would be happy about it. -4 -3 -2 -1 0 +1 +2 +3 +4
11. because trust between people and individual dignity count more than the firm's internal regulations -4 -3 -2 -1 0 +1 +2 +3 +4
12. because the company had committed an injustice first, the two workers were justified in breaking into the offices -4 -3 -2 -1 0 +1 +2 +3 +4
13. because the two workers saw no legal means of revealing the company's misuse of confidence, and therefore chose what they considered the lesser evil. -4 -3 -2 -1 0 +1 +2 +3 +4

How acceptable do you find the following arguments *against* the two workers' behavior? Suppose someone argued they were *wrong* . . .

I strongly reject I strongly accept

14. because we would endanger law and order in society if everyone acted as the two workers did. -4 -3 -2 -1 0 +1 +2 +3 +4
15. because one must not violate such a basic right as the right of property ownership and take the law into one's own hands, unless some universal moral principle justifies doing so. -4 -3 -2 -1 0 +1 +2 +3 +4
16. because risking dismissal from the company on behalf of other people is unwise. -4 -3 -2 -1 0 +1 +2 +3 +4
17. because the two should have run through the legal channels at their disposal and not committed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4 -3 -2 -1 0 +1 +2 +3 +4
18. because one doesn't steal and commit burglary if one wants to be considered a decent and honest person. -4 -3 -2 -1 0 +1 +2 +3 +4
19. because the dismissals of the other employees did not affect them and thus they had no reason to steal the transcripts. -4 -3 -2 -1 0 +1 +2 +3 +4

M:\JH\English\1_98712004-009\1\Class\ref\HW1\HW1 (revised) (2002)

2. Doctor's Dilemma

A woman had cancer and she had no hope of being saved. She was in terrible pain and so weakened that a large dose of a painkiller such as morphine would have caused her death. During a temporary period of improvement, she begged the doctor to give her enough morphine to kill her. She said she could no longer endure the pain and would be dead in a few weeks anyway. The doctor complied with her wish.

20. Do you disagree or agree with the doctor's behavior?

I strongly disagree									I strongly agree
-3	-2	-1	0	+1	+2	+3			

How acceptable do you find the following arguments *in favor* of the doctor? Suppose someone said he acted *rightly* ...

	I strongly reject								I strongly accept
21. because the doctor had to act according to his conscience. The woman's condition justified an exception to the moral obligation to preserve life.	-4	-3	-2	-1	0	+1	+2	+3	+4
22. because the doctor was the only one who could fulfill the woman's wish; respect for her wish made him act as he did.	-4	-3	-2	-1	0	+1	+2	+3	+4
23. because the doctor only did what the woman talked him into doing. He need not worry about unpleasant consequences.	-4	-3	-2	-1	0	+1	+2	+3	+4
24. because the woman would have died anyway and it didn't take much effort for him to give her an overdose of a painkiller.	-4	-3	-2	-1	0	+1	+2	+3	+4
25. because the doctor didn't really break a law. Nobody could have saved the woman and he only wanted to shorten her suffering.	-4	-3	-2	-1	0	+1	+2	+3	+4
26. because most of his fellow doctors would presumably have done the same in a similar situation.	-4	-3	-2	-1	0	+1	+2	+3	+4

How acceptable do you find the following arguments *against* the doctor? Suppose someone said that he acted *wrongly* ...

	I strongly reject								I strongly accept
27. because he acted contrary to his colleagues' convictions. If they are against mercy-killing the doctor shouldn't do it.	-4	-3	-2	-1	0	+1	+2	+3	+4
28. because one should be able to have complete faith in a doctor's devotion to preserving life even if someone with great pain would rather die.	-4	-3	-2	-1	0	+1	+2	+3	+4
29. because the protection of life is everyone's highest moral obligation. We have no clear mora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mercy-killing and murder.	-4	-3	-2	-1	0	+1	+2	+3	+4
30. because the doctor could get himself into much trouble. They have already punished others for doing the same thing.	-4	-3	-2	-1	0	+1	+2	+3	+4
31. because he could have had it much easier if he had waited and not interfered with the woman's dying.	-4	-3	-2	-1	0	+1	+2	+3	+4
32. because the doctor broke the law. If one thinks that mercy-killing is illegal, then one should refuse such requests.	-4	-3	-2	-1	0	+1	+2	+3	+4

Thank you!

3. 시험시간 및 기타(Lind, 2003)

1) 시험시간

- (1) MJT는 기본적으로 그룹-테스트이거나 우편-테스트일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MJT는 학력이 낮은 피험자를 위해서는 추가적 도움을 줄 것을 추천한다.
- (3) 테스트 그룹별 추천 시험시간
 - 대학생 및 고등학생(10학년 이상): 15분(8분에서 20분)
 - 5학년에서 9학년(한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 20분(15분에서 25분)
 - 초등학교 저학년(10세 이상 가능): 25분(15분에서 35분), 필요시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기타

- (1) MJT의 번역, 새로운 딜레마의 제안, 딜레마의 수정 등은 MJT 본부에 의해 타당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승인되어야 한다.
- (2)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별도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체를 바꾸거나 딜레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국가별로 익숙한 형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함.
 - 테스트 그룹별 교육 정도에 따라 9-point scale을 5-point scale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글자 폰트, 글자체 등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함.

○ C-지수 및 평가(Lind, 2010; 박균열, 2006; 김향인 2005)

1. C-지수 개관

MJT의 C-지수는 피험자의 단편적 행동보다는 전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양심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 이 도덕 판단이 그 사람의 높은 도덕적 양심을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안락사 찬성을 반영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한 가지 도덕 판단으로부터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성 발달에 관해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모호하다. 그 사람의 도덕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만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더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

MJT는 단순히 도덕적 태도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과제를 구현한다. 도덕성이 강한 인지 또는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 측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정의해야 한다. 도덕 판단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과제를 생각해 낼 수 있지만, 몇 가지 과제들만이 실행 가능하거나 타당하다. 어떤 과제는 측정에 사용하기 적합하지만 비도덕적인 과제도 있다. 예를 들면, 유혹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를 유혹해서 도둑질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과제 같이 실행은 가능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과제가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도덕적 책임이 동기가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도움을 주는 행동 중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욕망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 때문에 또는 큰 보상을 받고 싶은 기대감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도덕성 발달 이론가들이나 도덕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과제는 사람들에게 반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은 딜레마 해결에 있어 선호되는 도덕적 추리 수준을 나타내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특정한 도덕 수준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지수는 이러한 개념에 토대를 둔다. 피험자가 찬성 또는 반대 주장에 대해 도덕적 일관성을 보이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피험자가 찬성 또는 반대 주장에 대해 도덕적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첫째, 모든 종류의 일관된 판단이 도덕판단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관심사에 대한 한 개인의 판단이 가지는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을 피해가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딜레마에 대한 한 개인의 일관된 판단은 도덕판단 능력의 유효한 지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도덕적 경직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둘째, 도덕적 관심사나 원리들에 대한 한 개인이 내리는 판단의 결정이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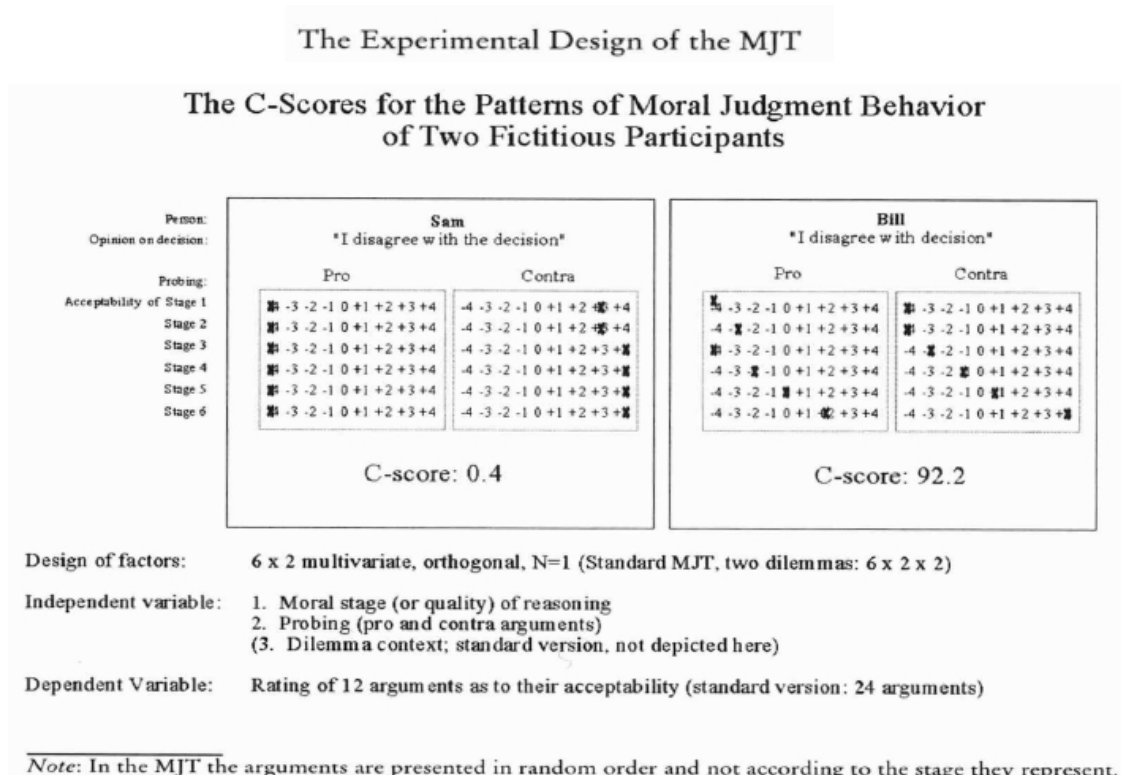
2. C-지수 내용

C-지수는 자신의 도덕 판단이 도덕적 관심이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서, C-지수는 어떤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견 또는 결정에 동의하는 경향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관심이나 원칙에 따른 도덕 판단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C-지수는 1과 100사이의 점수로 나타난다. 즉, C-지수는 주어진 논증 또는 행위의 도덕적 질에 대한 관심의 총 반응편차에 관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C는 낮음(1-9), 중간(10-29), 높음(30-49) 그리고 아주 높음(50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MJT에는 도덕적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덕 판단력을 C-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C-지수 평가 예시〉(Lind, 2008)



3. C-지수 계산법

1) 계산방법

C-지수는 MANOVA와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이 지수는 소형 계산기를 사용해서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큰 데이터는 컴퓨터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상업적 통계 패키지에는 이미 만들어진 분석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SAS, SPSS, STATISTICA 같은 패키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개별 응답 양상의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표준 버전의 코딩 방법 및 STATISTICA, 버전 4.x의 샘플 프로그램은 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채점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WordPerfect의 테이블 기능을 이용한 N=1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C-지수를 손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 방법으로 계산하기를 권한다.

첫째, 평균 제곱합(Mean Sum of Square, SSM)을 구한다. 각 주장에 대해 모든 원 데이터를 합한다(24개 문항: 'x' 는 합해야 할 X개의 원자료를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합계를 제공하고, 얻어진 합을 항목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얻는다(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MJT의 표준 버전에 있는 문항수인 24를 쓴다). 결과는 산술평균과 거의 같은 평균 제곱합(Mean Sum of Squares)이다.

둘째, 조정된 총 편차 제곱합(Total Deviation Sum of Squares, SSDev)을 구한다. X개의 원데이터를 제곱하여 x^2 를 구한다. 이것을 조정전 총 제곱합(unadjusted total sum of squares)이라고 한다. 그 다음 x^2 를 합하고 평균 제곱합(Mean Sum of Squares)을 뺀다.

셋째, 조정된 단계 제곱합(Stage Sum of Squares, SSStage)을 구한다. 특정 단계에 속한 4개의 문항 모두를 합하고 얻어진 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1단계에서의 제곱합은 $(x1, worker, pro + x1, worker, con + x1, doctor, pro + x1, doctor, con)^2$ 이다.

이 과정을 6단계 모두에 반복한다. 그 다음 6개의 제곱합을 합하고, 얻어진 결과를 4(각 단계에서 반복된 측정 수)로 나눈다. 그 얻어진 결과가 조정 전 단계 제곱합(unadjusted stage sum of squares)이다. 이 숫자에서 평균 제곱합(Mean Sum of Squares)을 빼면 조정된 단계 제곱합이 된다.

이제 C-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준비되었다. 먼저, 단계 제곱합을 총 편차 제곱합으로

나눈다(SSStage/SSDev). 이것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인 R²이다. C-지수를 구하려면 이 숫자에 100을 곱한다. 여러 방법으로 이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이 기술적으로도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한다. 특히 손으로 계산하거나 소형 계산기로 계산할 경우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얻은 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한다. SSStage은 SSDev보다 절대 클 수 없다. SSMean은 조정 전 SSTotal보다 절대 클 수 없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에서 계산할 경우, 손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시험해 본다. 예를 들면 모두 1을 사용하면 조정된 숫자는 '0' 이 된다. 또한 SSStage와 SSDev를 사용하거나,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는 모두 "1"을 사용하고 제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모두 '0' 을 사용해 본다. 이렇게 하면 SSStage에 대해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C-지수의 산출원리에 따라 Excel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교육현장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손쉽게 도덕성 평가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지수 계산 예시〉

Scoring of Person B's Response Pattern to the MJT-Items

	Workers' Dilemma		Doctor's Dilemma			
	Pro	Con	Pro	Con		
Opinion:	3		-2		$\sum x$	$(\sum x)^2$
Stage 1	-4	3	-4	-4	-9	81
Stage 2	-4	3	-3	-4	-8	64
Stage 3	-4	4	-4	-3	-7	49
Stage 4	-4	4	-2	-1	-3	9
Stage 5	-4	4	0	1	1	1
Stage 6	-4	4	2	4	6	36
$\sum =$	-24	22	-11	-7	$\sum (x_{\text{Stage 1-6}})^2/4 =$	60
	$(\sum x_{\text{pro}})^2 = 961,0$		$(\sum x_{\text{con}})^2 = 121,0$		MJT Competence score:	
$SS_{\text{Total}} =$	286		$SS_{\text{Stage}} = 43,3$			
$SS_{\text{Mean}} =$	16,7		$SS_{\text{Pro/Con}} = 73,5$		$r^2_{\text{ProCon}} (\%) =$	27,3
$SS_{\text{Deviation}} =$	269,3				$r^2_{\text{Remainder}} (\%) =$	56,6
$SS_{\text{Total}} - SS_{\text{Mean}}$						

2) C-지수의 유용성

MJT에 대한 평가 연구는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MJT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C-지수는 근거로 하고 있는 이론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MJT의 C-지수는 높은 점수로 조작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바람직함 또는 소위 ‘Hawthorn의 효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명백히 프로그램의 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MJT는 다른 테스트로 감지될 수 없는 교육적 효과들에 민감하다. 넷째, MJT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수백 명의 피험자가 필요한 연구나 자원(시간, 돈)이 부족한 경우 사용하기 적절하다.

MJ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나이, 안정성, 또는 철학과 같은 임의적 기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도록 문항을 선택하거나 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C-지수는 매번 연구하는 샘플의 사람에 맞게 새로 표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 다른 연구 및 샘플에서 얻어진 결과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MJT 타당도 평가(Lind, 2003; 2005; 2006; 2008)

1. 단계 간 상호관계의 준-단방향 구조(Quasi-Simplex Structure of Stage-Correlations)

- (1) 인접한 단계 간(예, 5단계와 6단계 간)의 상관관계는 더 멀리 떨어진 단계 간(예, 4단계와 6단계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아야 한다. 비록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MJT 연구들은 콜버그의 원래 연구보다 보다 더 명확한 최적의 준-단방향 구조를 형성하였다.

- (2) 예시

Criterion #1: Quasi-Simplex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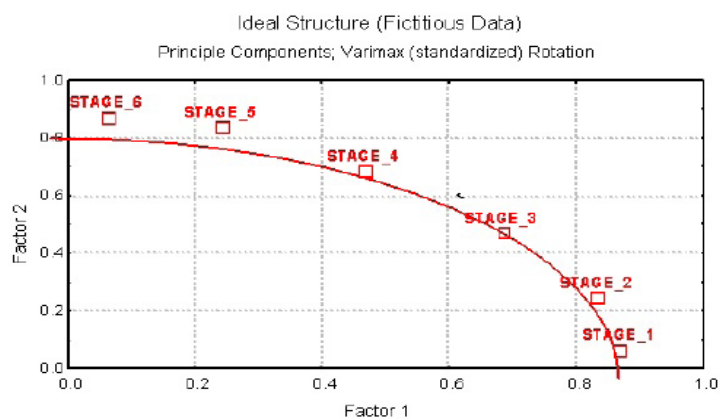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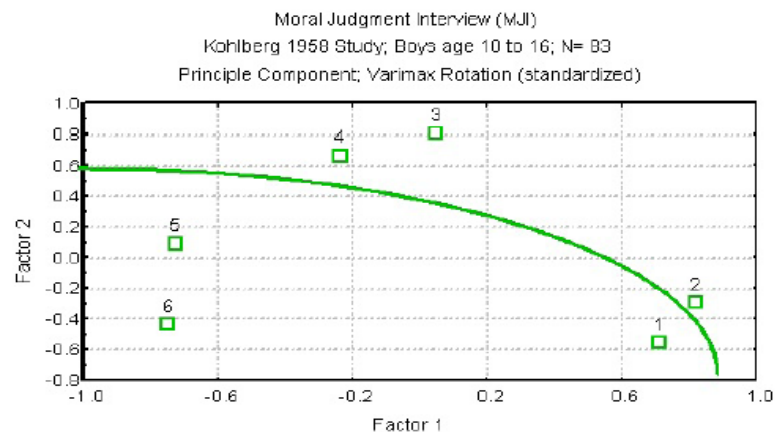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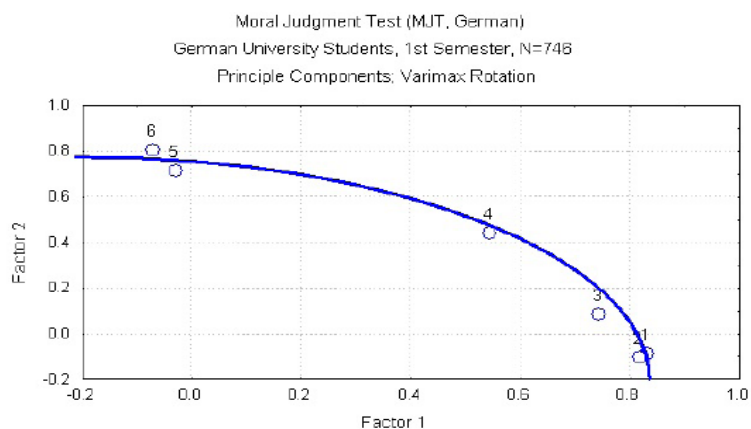


Figure 2



2. 위계적 선호 질서(Hierarchical Preference Order for the Kohlbergian Stages)

(1) 피험자들은 콜버그 도덕적 딜레마의 추론에 있어서 높은 단계를 더 선호해야 한다. 즉, 피험자들은 6단계 추론에서는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1단계 추론에서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단계 선호도에 있어서 약간의 전도가 (특히 1단계와 2단계, 5단계와 6단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테스트 자체의 타당도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2) 예시

Criterion #2: Preference Hierarchy of Kohlbergian Stages of Moral Ori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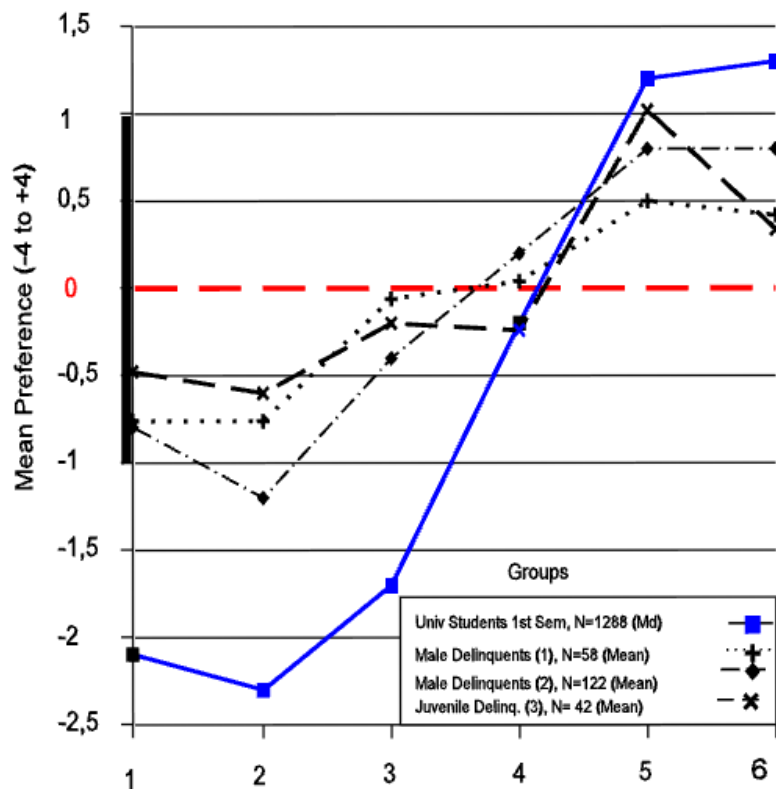


Figure 4

3. 정의적-인지적 병행주의(Affective-Cognitive Parallelism)

- (1) 정의적 메커니즘과 인지적 메커니즘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피험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태도를 가장해서 나타내지 않고 그들 자신의 도덕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점수는 도덕성 점수와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비록 모든 테스트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MJT 연구들은 도덕 판단 행위의 두 가지 측면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은 피아제의 정의적-인지적 병행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 (2) 예시

Criterion #3: Affective-Cognitive Paralle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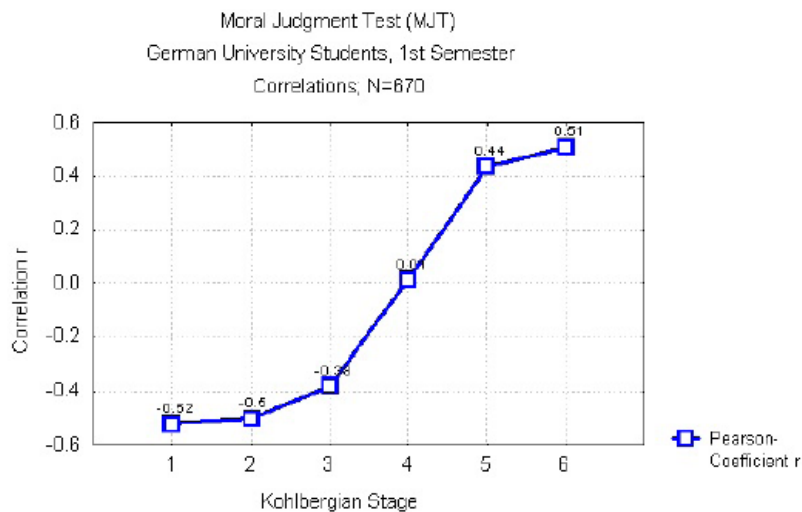


Figure 5

4. 도덕성 발달과 교육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moral development with education)

- (1) C-지수는 피험자의 교육의 양적 정도와 질과 높은 상관관계($r > 0.40$)를 나타낸다.

(2) 예시

Criterion #4: Substantial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ral Judgment Competence and Quantity/Quality of Education –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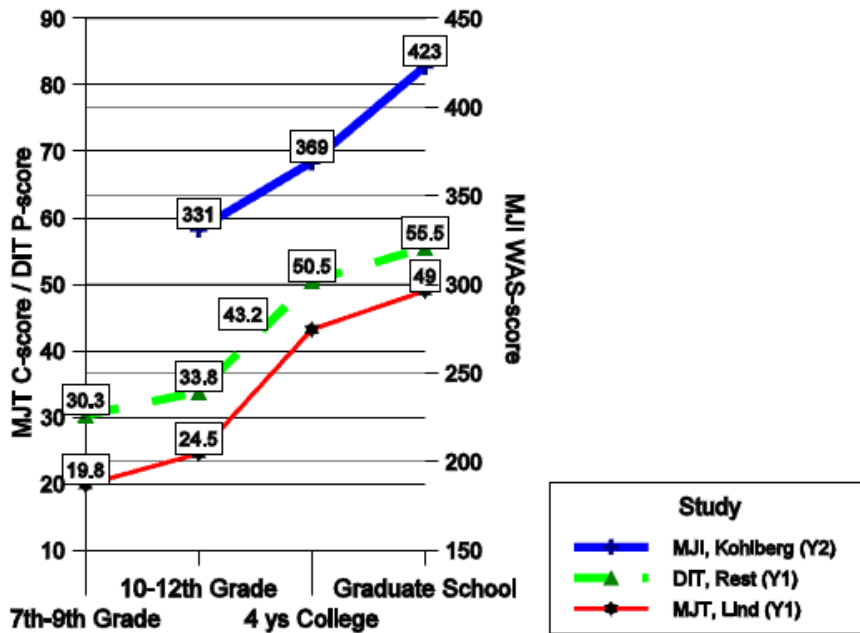


Figur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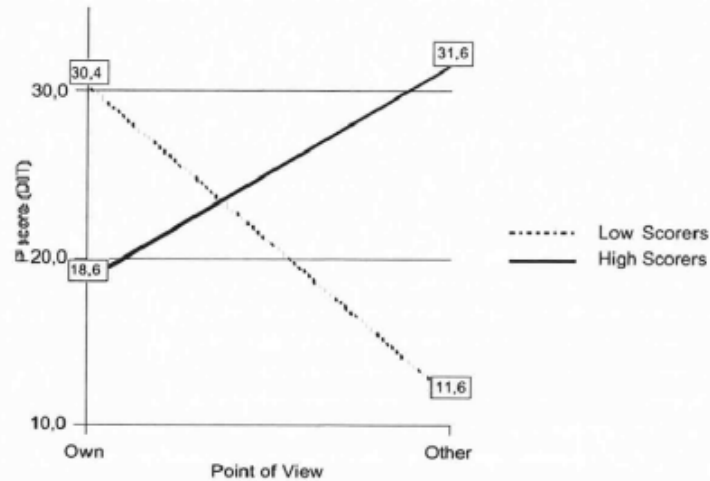
5. 조작 불가능성(Non-fakeability)

- (1) 도덕적 능력은 조작을 통해 상향 조정될 수 없다. 그런데 DIT 실험은 그 결과가 조작될 수 있었다. 즉, 피험자들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지 않고 테스트에 임했을 경우와 두 번째 테스트에서 자신이 아닌 (예를 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테스트에 임했을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와 다르게, MJT 실험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테스트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C-지수가 상향 조작될 수 없었다. 요컨대, MJT는 DIT와는 다르게 피험자들에게 주어진 동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C 점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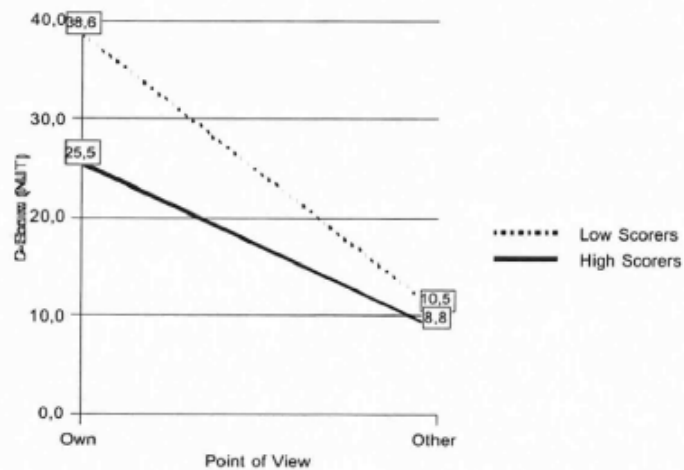
(2) 예시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MJT.

When being asked to simulate the moral judgment behavior, "Low Scorers" can simulate the moral *attitude* of "High Scorers" but not their moral judgment *competence*.



Emler et al. (1983) Experiment: The P-Score (DIT) Can be Simulated Upward.



Lind (2002) Experiment: The C-Score (MJT) Cannot be Simulated Upward.

부록 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 안)

-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균열 (경상대학교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① 중학교 2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2.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아버지의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

4. 어머니의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

5.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①매우 재미있다

②재미있다

③보통

④재미없다

⑤전혀 재미없다

6. 본인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기타종교()

⑤없다

7. 친한 친구의 수는?

①거의 없다

②1~5명

③6~10명

④10~20명

⑤20명 이상

“친구의 심부름”

철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호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영배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⑤	④	③	②	①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호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만일, 영배가 철호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영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심부름 해준다 __ (2) 심부름 하지 않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위와 같은 일들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 보단 더 나은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⑤	④	③	②	①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중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깐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앞에 나가면 뒤쳐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뻘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꼭 들어차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마음에 들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깹~’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기분이 나쁜 친구가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⑤	④	③	②	①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⑤	④	③	②	①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⑤	④	③	②	①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박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훔친다 ②잘 모르겠다 ③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신고해야한다 ②잘 모르겠다 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벌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나 아프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프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인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락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 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 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4

도덕적 판단력 진단 검사도구 적용 논의 과정

1. 전체 회의 총괄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체 회의(도덕적 감수성팀, 도덕적 판단력팀, 도덕적 동기화팀, 도덕적 품성화팀) 소집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사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전체적인 협조 사항 및 질문지 구성, 통계처리 절차 등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 참조).

<표 1> 청소년 도덕성 지수 개발을 위한 전체 회의 소집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항
1차	2011.5.6(금)	서울 교대	총17명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명확화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 -검사 방식 -기타사항
2차	2011.6.24(금) -25(토)	여주 남한강 콘도	총18명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예비검사 방안 -청소년 도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계획서 -예비설문조사 점검 양식 제작
3차	2011.7.16(토)	서울 교대	총9명	-허위문항 판단방법 -채점방식 -인구통계변인 -DIT관련 사항 -기타 및 행정사항
4차	2011.8.21(일)	서울 교대	총10명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 -기타사항 -행정사항

2. 세부 회의 내용(팀별 회의 포함)

1) 연구진 Kick-Off 회의

2) 도덕적 판단력, 품성화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 4. 16(토)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① 국내·외의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및 이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 현황 소개.
- ② 국내 자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학 연구실에서 나온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관련 검사도구 및 경험적 연구 선행 자료 확보 및 검토.
- ③ 카페를 통한 자료 및 정보 교환(<http://cafe.daum.net/teensmoral>,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3) 차기 회의를 위한 과제 및 역할 분담

- ① 4월말까지 역할분담을 통한 서론부분 구축(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이론틀)
- ② 이인재-연구총괄, 윤영돈/류숙희-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분석 통한 도덕적 품성화 측정 지표 준비, 김경순/김지영-국내 선행연구자료(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논문 목록 정리 및 경향성 파악, 안초록-연구 커뮤니티(카페) 개설 및 연락 담당.
- ③ 개별 과제 게시 및 정보교환은 카페를 통해 진행

3) 제1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5.6.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203호

(2) 회의 내용

- ① 레스트의 4구성 요소의 명료화를 위한 요소별 개념 및 하위 요소 발표
- ② 각 팀마다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중첩된 것은 없는지 확인 : 품성화와 동기화 두 요소가 중첩된 부분이 있음
- ③ 도덕적 품성화 : 지속적인 실행력에 초점을 두고 한 개인의 내면적인 힘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품성화는 그냥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도덕적 품성화라고 이름 붙인 이상 윤리적 접근을 배제한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④ 도덕의 개념 확인 : 레스트는 ‘도덕=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 도덕에 관한 개념 해석은 서구 사회 관점이 아닌 한국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설문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동의함
- ⑤ 검사 방식
 -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설문을 만들기로 함.
 - 다인수 검사와 소수 샘플 심층 검사를 둘 다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인수 검사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인수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림. 소수 샘플 심층 검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안 작성 시에는 포함시켜 보기로 함.
 - 총 설문 페이지 : 한 요소에 3개의 스토리로 구성하기로 함. 하나의 스토리에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정도의 질문으로 만들기로 함. (4개 요소이기 때문에 총 12페이지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1차와 2차 설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
 - 대상 : 예비조사는 1000명 정도로 하자는 의견과 200여 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본을 줄이더라도 더 집중력 있게 검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통일.
 - 척도 : 7점, 9점 척도는 너무 복잡하고 5점 척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용.
 - 시간 : 1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2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 내용 : 지루함을 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를 녹여낸 설문을 개발하자는 의견.
- ⑥ 기타 사항
 - 일관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내면적인 덕성, 즉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는 요소의 측정 문제

- 도덕성 총점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총점은 내지 않기로 결정함.
- 영역별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합산 점수를 제시하는 것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
- 4개 영역 중요도 (선호도) 조사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6문제 정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뽑는 방식. 둘째, 검사를 한 번 실시하고, 다시 실시해서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방식. 셋째, 기존 검사와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이 채택되었음.

(3) 차기 회의 위한 과제

- ① 5월 20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 위한 역할 분담 및 실행(5월 15일까지 작업한 것을 카페에 게시).
- ② 김정순/김지영-품성화 중 용기에 관한 것, 이인재/안초록-품성화 중 절제에 관한 것, 류숙희/윤영돈-도덕적 품성화에 관한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선행 연구물 분석 그리고 이것의 시사점, 품성화 측정 도구에 관한 지표 개발(1-2개 정도)

4) 도덕적 판단력/품성화 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6.4(토) 16:00-19: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① 5월 22일 제출한 중간보고서(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화)에서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
- ② 중간보고서의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소

5) 제2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6.24(금) 15:00-25(토) 12:00

남한강 일성 콘도

(2) 회의 내용 : 팀별 진단 검사도구 검토,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

▲ 진단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 품성화 하위 요소를 절제-만족지연능력, 용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4개로 나뉘었는데, 다른 팀처럼 3개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절제- 만족지연능력은 인내로 바꾸고, 용기와 자기효능감을 묶어서 자아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수행기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나는 ~을 할 것이다’ 를 빼는 것이 좋겠다. 6개의 질문에 허구 문항을 추가하여 (앞, 뒤, 랜덤 순서로) 답변의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 스토리가 많은데 사전 조사를 통해서 3개의 스토리로 압축하도록 한다.
- 스토리가 길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도덕성 구성요소별 검사지 양식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 예비검사 방안

- 인원 및 대상 : 총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중학교 2학년 남자 60명	중학교 2학년 여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남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여자 60명

- 조사는 예상 소요시간(2H)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간극이 1주일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조사대상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전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질문지는 “추후 협조” 라고 해서, 사전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는 한꺼번에 실시하고, 자료처리(입력-분석)은 각 팀별로 분담해서 한다.
- 질문지는 PM사무국에서 종합해서 인쇄한다. 스테이플러로 철을 할 때에는 인구통계변인과 감수성을 한묶음으로 하고, 판단력은 별도로 한묶음으로 해야 한다.
- 선물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필기구는 질문지 나눠주기 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감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한 사람에게는 끝나고 나서 상품권을 나눠줄 것이라는 공지를 한다. 조사가 실제 끝이 나면 문화상품권(5천원)을 제공한다.

- 질문지는 조사 내용이 다르게 실린 2개씩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으므로, 설문지는 조사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배포 전 설문지 유형을 확인하여 배포한다.

▲ 청소년 도덕성 척도개발을 위한 신뢰성 타당도 검증 계획서(박균열, 경상대)

- 사전검사: 연구진 자체적으로 실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정도, 답안작성 중 질문사항 등 내용/절차 점검
- 신뢰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는 측정 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다.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동일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나 항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갈등문항에서 연구자가 필수적(수치상 신뢰도 하락이라도 중요할 경우)이라고 판단할 경우 문항기술을 조정해야 한다. 계수를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에서 0.7 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각 연구팀 기술

•반분신뢰도(split-half method reliability):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두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사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획득한 다음, 항목의 다른 반쪽을 동일한 대상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양분된 각 측정도구의 항목 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적어도 8개 문항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분하는 방법에는 짝수항목과 홀수 항목으로 반분하거나, 무작위적으로 항목을 반으로 추출하여 나머지를 또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보통 Spearman-Brown Reliability Coefficient를 이용한다. ==> 각 연구팀 기술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method):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

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두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도출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신뢰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측정도구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루어진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 간격을 유의해야 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이 신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실제 신뢰성을 과소 측정하거나 과대 측정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주 간격으로 재측정을 하여 신뢰성을 파악한다. 만약 측정결과와 상관관계가 0.8이상 수준이면 그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증과정 길어 사실상 어려움.

- 타당도 검증: 타당도(validity)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당도는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내적타당도는 실험이나 연구에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고, 외적타당도는 이렇게 측정하여 얻은 실험이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실험이나 연구에서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인이 되는 변수의 작용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조사항과 외생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가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에 의한 타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다.

A.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라고도 하며, 이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즉, 측정도구가 대표성이 있는 척도내용을 표집했는가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타당도는 연구자나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이는 설문본 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의미전달의 정확성 또는 소요시간 이해를 정도를 조사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운 문항은 제외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관련전공의 박사, 교수 및 연구원)에게 해당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각 연구팀의 내용에 대해, 관련 타 팀의 내용 검증 등으로 보완

B.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특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측정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현재의 특정현상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정확타당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타당도를 통하여 기준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하며, 이는 본 척도의 결과와 기존 연구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전달한 바 있으나, 팀별 의견이 없었음. 팀별 주제에 맞는 기존 준거척도 제출하여, 본 조사 시 동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C.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개념타당도(concept validity)라고도 하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해서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얻어진다. 이는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세분화된다.

·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특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관심이 있는 특정개념과 관련이 되는 개념(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적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련된 개념들로 구성된 모델에 측정방법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들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일수록 이해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이 된다.

·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상이한 두 가지 측정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의하여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중 항목으로 복수로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

·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동질성 전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구분

－ 동질성 전제 안 된 경우: 우월집단, 정상집단, 열등집단(범죄자 등)

따라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학년(중1, 중2, 고1, 고2, 대학생)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

을 통하여 시행하며,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팀별 대조집단 선정에 유념하여 집단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 실험과 유사한 다른 상황이나 현실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타당도를 말한다. ==> 각 연구팀 위임

협조: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 간의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팀 내 조사시행 전담자 1명을 지정해서 PM사무국으로 통보 요망

-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는 이번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용타당도는 각 팀별로 학부 3, 4학년에게 풀어 보도록 해보고 코멘트를 받도록 하였다.

▲ 설문 조사를 위한 자체 점검표 제작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현황	학교	
	날짜	
	참석자 유형	
	참석자 수	
2. 결과	회수부수	
3. 설문지 배송	배송일	
	배송 방법	
4. 조사자 (학교 선생님)	이름	
	연락처	
5. 조사담당자	이름	
	연락처	
6. 기타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항	

6) 도덕적 판단력/품성화팀 회의 : 카페 게시판 통한 구성 요소 및 스토리 수정

(1) 일시 및 방법 : 2011년 6월 한 달간 카페 게시판 통한 수정 작업

(2) 수정 내용

① 도덕적 품성화 구성 요소 수정 (6월 27일, 류숙희)

대항목	소항목	설명
인내 (절제-만족지연능력)	인지적 전략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아강도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경우에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아효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성공경험, 대리경험이 필요함.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및 긍정적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위한 사회적 기술, 갈등해결에 관련된 인지적 판단능력, 전략구성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행위를 위해 자기의 판단, 느낌, 의견에 대해 공손하고, 의미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요소를 Rest의 도덕적 품성화를 정의하는 진술에서 확정함.

“(도덕적으로 행위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쇠약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Rest, 문용린 외 공역, 2008: 24)

② 도덕적 품성화 스토리 확정

- 스토리 개발 및 수정 보완 작업(6월 한 달간 카페 게시판 통해 작업)
- 6개의 스토리 중 최종 3가지 스토리 확정(6월 30일) (뽕소니, 심부름, PC방에서 생긴 일)

7) 3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16일(토) 17: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도덕적 품성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① 허위문항 판단방법

- 역문항의 경우 역코딩보다는 정코딩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
- 정문항과 역문항의 검사 결과, 그 차이가 3점 이상이 될 경우 허위문항으로 판단

★ 논의 결론

- ㉠ 역코딩을 하고 난 뒤 중앙(3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허위문항으로 판단
- ㉡ 2점 차인 경우 중앙(3점)이 관련될 경우에는 직접 그 문항과 설문지를 조사하는 작업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② 채점 방식

- 전체 채점 방식을 0점-4점으로 하는 방안과 1점-5점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가.
- 실상 저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 논의 결론 : 0, 1, 2, 3, 4의 방식으로 통일

③ 인구통계변인

- 3번과 4번의 부모 학력 문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 제시
- 5번과 7번은 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 제시
- 6번에서 '기독교' ⇒ '개신교'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한편 6번 문항을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만 측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

★ 논의 결론

- ㉠ 5번과 7번은 뺀다.
- ㉡ 6번 문항은 사용하되, 채점할 때는 군집 채점 방식으로 하여 종교가 있느냐(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를 묶어서) 없느냐로 통계

④ 기타 및 행정사항

- 데이터 클리닝의 기준 선정 필요성 제시
- 각 팀마다 허위 응답자를 조사하고, 로 데이터(raw data)와 허위응답자를 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두 반 정도(60명)만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반분 신뢰도)이 어떨것는가라는 의견 제시
- 각 영역별 총점이 통일되면 혹은 환산점수를 사용한다면, 매해 검사할 때 각 영역의 발달 정도를 검사할 때나 다른 부분에서도 비교가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신뢰도(내적 일치도) 검사를 할 때 측정 영역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조사지 첫 장에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 조사>를 ⇒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로 수정, 또한 <7-12개씩의 문항> ⇒ <여러 문항>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시
- 각 영역별 검사 지시문(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통일
- 최종 보고서는 각 팀마다 8월 말까지 작성하되, 이를 위한 모임을 8월 중순경 가질 예정임

8) 4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8월 21일(일) 15: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도덕적 품성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① 검사결과 분석 관련

- 답안에 대한 채점 방식을 지난 회의에서는 0-4점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1-5점으로 환원한다.
- 각 지수 산출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감수성), 요인분석(동기화/품성화)을 통해, p값이 .05초과는 우선 제외하고, 나아가 Beta값이 0.3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난 뒤에 종합지수를 계산한다.
- 요인 분석 결과 상정한 요인이 잘 묶여지지 않을 경우 문항을 조정한다.
- 2년차에는 1년차 때와 달리 고등학교 1-2학년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② 기타 사항

-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토의 관련 장소 / 시간 / 주제 / 팀별 논의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2-3년차 향후 연구 소요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추후 연구나 메타 연구는 3년차에 제시한다.
- 최종보고서 맨 앞의 총론에서 4요소의 상관관계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분석 시, 학교급, 성별, 도덕과목선호도,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도를 표기해서 분석하되, 의미가 없더라도 표시하고 분석에 포함한다. 다만 상호작용 분석 시는 성별*학교급별 교차 검증만 포함한다.
- 1년차의 작업에서는 모든 팀의 노력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쏟아야 한다.

③ 행정 사항

- 10.27(목)-28(금) 한국윤리교육학회 국제세미나 중 28일 오후 세션에서 '청소년도덕성검사 도구' 1년차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 요지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 기 제출 (9.30)한 보고서를 요약 작성, 실제 발표 시에는 ppt형태로 15분 내외 발표, 토론 3명 정도(15분).

9) 도덕적 판단력/품성화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18일(일) 15:00-18: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 작업

① 일정 관련 안내

- 9월 24일 오전~ 27일 오전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 9월 27일~29일에 보고서 최종 수정
- 9월 30일까지 제출

②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관련 검토

- 세 가지 스토리의 타당성 정도 검토
- 수행기술 가운데 '사회적 기술' 에 대한 결과가 불안정한 이유(문항으로 제대로 구현됐

는지, 문항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항에 문제가 없다면 시대적 가치 변화와 개인 주의의 확산으로 봐야 하는지)

- 문항 분포도(%)를 보여줘야 함
- 허위문항이 제대로 기능을 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
- 예시문항의 필요성 여부 : 도덕적 판단력에서는 필요하지만 도덕적 품성화에서는 필요성 크지 않음
- 검사자를 위한 매뉴얼 필요
-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 가운데 소항목이 Rest의 이론과 얼마나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논거 확보. Rest의 제4요소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검토하고, Rest의 4요소모형을 발전시킨 나바에즈와 랩슬리의 연구를 토대로 소항목의 구성 논리 확충 필요. 아울러 2차년도에서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대항목 및 소항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묶이기보다 사례별로 묶인 것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결론으로 바로 말하기는 어렵고 2차 년도에 더 탐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기타 사항

-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실용도 부분 추가
- 설문지 제목에 ‘도덕성 발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설문에 응할 때 자신의 도덕적 품성화 정도를 표현하기보다는 기대되는 혹은 바람직한 응답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학생 생활 질문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0) 5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일) 15: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 : 청소년 도덕성 발달 진단 검사도구 개발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화에 대한 보고서 초안 검토

-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 검토

- 연구의 결과 내용: 진단도구 개발의 과정, 예비검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보완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체제 및 참고문헌 검토: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제시한 보고서 체제에 맞는가? 본문에 참고한 참고문헌 정리가 올바른가?
- 9월 24-25일에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작성을 위한 방향논의

11) 연구자문 회의(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4일 16:00-25일 15:00까지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참석자 : 이인재, 안초록, 서규선, 박균열, 노영란, 김애경, 노화영, 박종태, 서채원, 김지영, 김경숙

(3) 회의 내용

- ① 1일차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적용(도덕적 판단력)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② 2일차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도덕적 품성화)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③ 검토 중점 사항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 관련 검사 진단 개발을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고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가?
 - 진단 검사도구의 개발이 측정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요소와 부합하는가?
 - 예비검사의 과정이나 결과 분석이 잘 되었고 타당한가?
 - 예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연도 연구 계획과 정책적 제언이 설득력이 있는가?
 - 보고서 체제 및 분량이 적절하고, 표현에서 부적절함이나 오자 등이 없는가?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making Tool for the Moral Judgment Test for Korean Youth

KYMT is developed to measure youth morality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s factor: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Moral judgment is as in the following.

This research ai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ool to measure the moral judgment of Korean Youth. The moral judgment refers to the capability which it corresponds to the second component among 4 component model which J. Rest suggested, and it is well making decision of the moral problem that it is contained in the certain aspect.

Through fully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ding type, selecting type questionnaire was fixed to this research. This was DIT (Defining Issues Test). Its Korean standardized version was KDIT. This research analyzes the tool to measure the moral judgement which was already developed by the preceding research.

The method of this research traced two steps. First step was to get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KDIT which was already confirmed and standardized domestically and globally. That was pilot-test style, so additional processes was continuously supplemented. As second step, after fully checking the sincerity and answer concentration ratio of the responder, it was modifies and could go to the

next process. The first pilot-test had 116 middle school students and 147 high school students as subject. The second pilot-test had 71 middle school students and 66 high school student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otal reliability of KDIT showed up as high as .81 of Cronbach α . And the reliability of P-index was a little bit high as .61 than the existing KDIT which was validated in 2007. In the statistical analysis by popul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s to the result P-index number of looking into by school class, sex, the parents academic career, religion, number of the friend, and the ethics class interest.

Through this process, this research tried to show the administrativ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is suggests further social economic demographical variables to fully analyze the moral judgmentdegree. Second,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KDIT, this suggest more specific and deep interview method. Third, to make further interpretation of the P-index of KDIT, this suggests that other indices of KDIT, for example, D-index, U-index, N-index should be dwelt and shown more complicate correlation with other indices in 4 components model.

Key Words: Morality, Youth Morality,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e Four Component Model, Moral judgment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순용 · 김국현 · 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억 (자체번호 11-R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장근영 · 박수억 (자체번호 11-R2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 11-R15 한 · 중 · 일 · 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 · 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 · 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적용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6-9

978-89-7816-973-8(세트)